

유럽시장에 K-패션 선보여...22년만에 파리패션 위크에 남성복 브랜드 6월 데뷔

서울시, 파리패션위크 기간 개최되는 수주전시회(트라노이)에 '서울패션위크 전용 전시관' 조성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4일간 파리 브롱나이궁(Palais Brongniart)에서 열린 '2023 F/W 파리패션위크 트라노이(TRANOI) 전시회'에서 6개의 국내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전시관 운영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봄부터 '파리패션위크' 공식 수주전시회인 '트라노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파리패션위크 기간에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을 조성하여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세일즈를 지원하고 있다.

트라노이(TRANOI) 전시회는 프랑스 패션연합회(FHCM)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은 파리패션위크 공식 수주전시회로 유럽, 중동, 북미 등의 주요 백화점, 편집숍, 온라인 쇼핑몰 구매자(바이어)가 결집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수주전시회이다.

2023 F/W 트라노이 전시회에 참여한 6개의 서울패션위크 여성복 브랜드 '곽현주컬렉션(KWAKHYUNJOO COLLECTION)', '두칸(DOUCAN)', '라이(LIE)', '므아르(MMAM)', '비건타이거(VEGAN TIGER)', '티백(tibaeg)'이다.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은 1층 노트르담 데 빅투아르홀(NOTRE-DAME DES VICTOIRES)에 자리했으며, 서울시는 브랜드별로 의상이 구매자(바이어)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록 입체적 공간구성 및 집기류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전시관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는 이번 트라노이 전시회에서 브랜드별 수주성과(계약)를 높이기 위해 트라노이 측과 전담 세일즈팀을 꾸려 맞춤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온라인 B2B비즈니스 플랫폼인 르뉴블랙(LENEWBLACK) 입점 지원과 기획전 조성을 통해 온라인 수주 상담을 지원했으며, 3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에는 전시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구매자(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르뉴블랙(LENEWBLACK)은 프랑스 패션연합회(FHCM)와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온라인 패션B2B플랫폼으로, 디지털 쇼룸을 통해 제품 등록, 온라인 상담 및 수주 주문이 가능하다.

6명의 서울패션위크 디자이너들은 개성있고 다양한 한국의 패션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에서 온 구매자(바이어)들과 수주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파리에서 수주전시회 일정을 마친 디자이너들은 곧이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서울패션위크에 참가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내외 초청객들 앞에서 다채로

운 브랜드 패션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패션위크에서는 총 31개의 브랜드 패션쇼가 진행되며, 67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주전시회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도 함께 진행된다.

유럽시장에서 '케이(K)-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25일, 4일간 파리 개리지 아멜롯(Garage Amelot)에서 진행되는 6월 파리 트라노이 전시에는 5개의 국내 남성복 디자이너 브랜드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비욘드클로젯(BEYOND CLOSET), 슬링스톤(sling stone), 아조바이아조(AJOBYAJIO), 이룩(IRYUK), 얼킨(ui:kin) 등 5개 남성복 브랜드가 참여해 24 S/S 컬렉션 전시를 진행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파리에서 남성복 3개 브랜드의 연합 패션쇼도 개최한다. '파리패션위크'에 서울패션위크 남성복 브랜드가 선보이는 것은 서울패션위크가 시작한 지 22년 만에 최하다.

2023 F/W 서울패션위크의 오픈을 맡은 얼킨(ui:kin)을 비롯해 비욘드클로젯, 슬링스톤 3개의 브랜드는 연합패션쇼를 개최한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패션위크가 파리 트라노이 수주전시회에 진출한 이후 유럽시장에서 케이(K)-패션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단순한 전시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에서 세일즈, 홍보, 마케팅 등 측면 지원을 강화해, 서울패션위크가 국내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의 가장 매력적인 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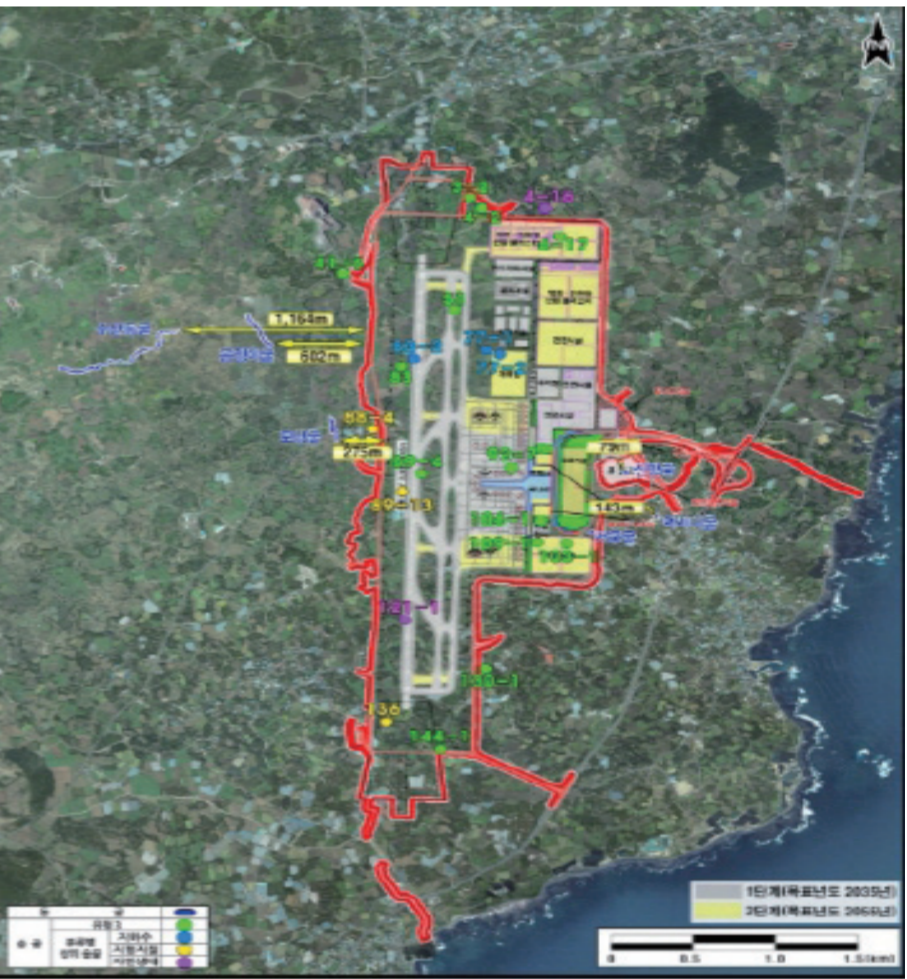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 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적 보호생물 보호 및 송골영양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도 공개했다.

성지아기자



전남도, 2023 농촌에서 살아가기 전국 첫 운영

전라남도는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 참가자 모집을 보성 다향울림촌마을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완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은 전남도가 앞서 추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벤치마킹해 2021년 신규 추진한 사업이다. 도시민이 농촌에 살아보면서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과 상호 소통하며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전국 9개 광역시·도 114개 시군 130개 마을에서 500여 가구 모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보성 다향울림촌 체험마을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참가자 모집을 완료하고 10명의 참가자를 선정해 지난



2일 살아보기 관계자와 함께 간소한 환영식을 마쳤다.

연수비를 개인당 월 30만 원,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해 참가자가 농촌생활

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각종 체험과 영농교육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 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해명기자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나 주 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세액공제, 담례증

지역생산자 농촌소득증대

나주시 기금사업

NAJU 나주시 NAJU CITY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의원, “한국형 ChatGPT 산업 현황과 전망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성료!

ChatGPT를 통해 한국형 AI 서비스 산업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정책방향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과 시의원들의 연구 단체인 서울미래정책연구회 주관으로 3월 6일 13:30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서소문본관 지하1층)에서 진행된 ‘한국형 ChatGPT 산업현황과 전망’ 토론회가 업계·학계·담당 공무원 등 6명의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와 관련된 발제와 자유토론까지 2시간 넘게 이어져 성황리에 마쳤다.

금번 토론회는 산업과 공공분야를 넘어 일상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ChatGPT’를 통해 AI 서비스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형 AI 기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아 ChatGPT 산업현황과 문제점,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진 토론에서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 김진옥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정강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장, 김기현 서울특별시 산산업정책관, 이태훈 서

울산업진흥원 미래혁신단 본부장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ChatGPT 시장 현황과 가능성 ▲ChatGPT의 약점과 문제점 ▲표절과 저작권 등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AI 챗봇 산업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뒤이어 유승재 페르소나AI 대표는 ▲국내외 해외의 AI 시장상황 ▲공공과 기업의 한국형 챗GPT 활용 현황 및 방안 등을 토론하고, 페르소나AI가 개발한 챗봇, 메타휴먼 등의 시연을 선보였다.

김진옥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ChatGPT 산업의 개인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법적 분야를 짚어줬고, 김기현 서울특별시 정책산업관은 ▲양재AI 융·복합 타운건립 ▲서울시의 AI특화기업 육성현황 ▲OPEN-AI 플랫폼 등 향후 서울시의 AI 산업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정강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장은 AI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고, 이태훈 서울산업진흥원 미

래혁신단 본부장은 국내 AI 사업모델과 정책지원이 가장 먼저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며, 다음으로는 업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일관적인 대응을 반복하는 상담 업무에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태용 의원은 “ChatGPT로 상징되는 AI 서비스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동시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작권, 윤리적 문제 등 불완전 요소가 산재한 양날의 검과 같다”며, “오늘 두 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회를 통해 AI 기술혁신을 둘러싼 한계와 가능성 등 다양한 논점과 방향성을 제시해 준 패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일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ChatGPT는 더욱 발전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하며, “기술의 한계는 보완하고 가능성은 확대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입법 성과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광수/기자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는 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연구회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계획, 연구활동비 등을 심의했다.

이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평택역사문화연구원(김영주 대표의원),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전망구축 연구회(최선자 대표의원),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이종원 대표의원), ▲ESG 연구회(김명숙 대표의원) 등 총 4건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영 위원장은 “생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며 “심도있는 연구활동으로 평택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전북도의회, 900억 규모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기종 선택 신중해야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무상 보급하려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21.4%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900억 규모의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두 번의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기종 선택에 있어 구체적인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 기기 물품 규정 선정 회의가 3월 7일 예정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초등학교는 웨일북, 중학교는 노트북으로 기종을 결정하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노트북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되기 보다는 각자 개인 휴대용 업무나 게임 등에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오히려 수업 중의 판 짓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중고등학교에서 노트북은 원활한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에 적합하지 못하다. 특히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으로 스마트 기기가 아닌 노트북을 주력으로 보급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실사 MDM 프로그램이 설치되어도 학생들이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하게 되면 기기 제어가 완벽하지 않으며, 유해사이트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불법적인 사이트 등의 접근도 차단하기 힘들다. 잦은 업데이트와 보안성의 문제점은 수업의 큰 장애 요소이다.

수업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배터리 지속성도 따져야 한다. 이는 기종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량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OS의 선택에 따라 사용이 지속되면 성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문제점도 기종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수업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수업 장애요소가 많은 기종

으로 평택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선택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보급에 거론되는 웨일북이 타 시도교육청에서 보급률이 현저하게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900억대 예산으로 보급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의 수량도 2배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노트북은 도내 ‘스마트기기 사업’으로 먼저 보급된 크롬북에 비해 2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근 도의원은 “학생 수업과 직결된 900억 규모의 사업을 졸속 추진하게 되면 그 뒷감당의 피해는 상상 초월이다.

기종에 따라 가격도 2배의 차이가 나는데 학교 교실을 게임 PC방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학생 수업의 효율성과 최적화된 기종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되어서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출/기자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강원도의회가 소양강 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를 위한 ‘소양강 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출범하고,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

원이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소양강 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현황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 및 향후 연구회의 주요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기영 회장은 “소양강 댐은 국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으나, 춘천은 50만㎡의 면적 수몰과 2만여

명 주민들의 마을공동체가 파괴됐다”면서, “댐 주변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으로 엄격한 규제 하에 놓여 주민들이 농업소득 감소 등 재산권 침해와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권 침해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등원/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3월 월례조회 개최...공직기강 확립 강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월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6일 오전 의회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민생과 도민을 위해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회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언제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소란하고 무질서해 보일 수 있다”라며 “그러나 그 무질서 속에서 민의의 방향을 찾고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곳 또한 의회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과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기에 대립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라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도록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장이 추진 중인 직원 소통 프로그램 ‘열려라 소통의 문’을 언급하며 “인사권 독립 후 의장이 임용한 1호 사무처장만큼 기대가 크다. 발전된 조직문화로 의회 지원역량을 더욱 키워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선 (112)	문화부:대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대선 (113)	부동산부:대선 (117)
	경제부:대선 (114)	오피니언부:대선 (118)
	스포츠부:대선 (115)	지방부: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혜영/기자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도전합니다!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체험형 축제, '서울페스타2023' 개최

2회째인 서울페스타 올해부터 5월 첫주 정례화... 다음달 4.30.~5.7. 8일 간 개최

서울시는 2023년 본격적인 관광회복 시기,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관광 재도약의 동력이 될 '서울페스타 2023(SEOUL FESTA 2023)'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8일 간 광화문 광장 및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 전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계가 어려웠던 2022년 8월 서울페스타를 최초 개최하며 서울관광 회복의 신호탄을 알렸던 것에 이어, 올해부터는 서울페스타를 5월에 정례 개최하며, 서울의 매력을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기획했다.

서울페스타 2023은 외래 관광객의 본격적인 서울방문 시기에 맞춰 서울의 매력을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기획했다.

특히, 서울관광 재건 및 붐업의 주체로서 관광업계가 함께 기획하고 손님맛을 준비하는 민관협력형 축제로 추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울페스타 2023'의 슬로건은 "Feel the Real Seoul"이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도 비대면으로 밖에 접할 수 없었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서울을 방문해 진짜 서울의 매력을 체험해 보라는 의미이다.

'서울페스타 2023'은 ① 다양한 한류공연을 선보일 'Music(음악)' ② 서울의 매력을 총 망라한 "Style(멋)" ③ 한강에서 즐기는 서울의 맛 "Taste(맛)" ④ 서울의 아름다운 밤을 더욱 돋보이게 할 "Starry Night"(야경), ⑤ 서울 전역을 축제 분위기로 몰아넣는 "붐업 행사", 크게 다섯 가지 테마로 기획했다.

우선, 축제의 서막을 여는 K-팝 콘서트(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스타들을 만날 수 있으며, 서울페스타의 하이라이트인 초대형 체험형 서울관광 종합안내소, "광화문 서울스퀘어"에서 드라마, 뷰티, 패션 등 트렌디한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다.

한강 잠수교에서는 K-푸드 '브릿지 맛-켓'이, 독섬 한강공원에서는 아름다운 서울의 밤하늘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을 '한강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지면서,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특별함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명동에서는 K-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명동 페스티벌'이 개최되며, 그밖에도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광장, 노들섬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됨으로써 서울페스타 기간 중 서울 전역이 들쭉이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페스타 2023'의 화려한 개막식 공연이 4월 30일(일) 19시 50분부터 100분간 잠실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엔하이픈, 더 보이즈, 아이콘, 스테이시, 케플러, 이영지 등 케이팝 스타들이 총출동해 약 4만 명의 국내외 관객들과 함께하는 전 세계인의 케이팝 축제로 꾸며진다. 서울시는 대규모 K-POP 개막공연을 통해 서울관광 재도약의 서막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서울페스타 2023'의 메인 행사장인 광화문광장은 4월30일(일)~5월7일(일) 8일간 다양한 서울의 '맛'과 '멋'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행사기간 광화문광장을 '서울의 매력을 맛보고 서울 전역으로 떠나는 서울관광의 출발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서울스퀘어가 시작되는 공간에는 방문객 현대와 SNS 확산의 거점이 될 '웹캠데이와 아트웍(Artwork) 휴식존'이 조성된다. 아트웍 휴식존에는 인기 캐릭터 벨리곰이 초대되어 관광객들의 인증샷 욕구를 자극할 예정이다.

놀이마당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서울의 여행정보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관광 홍보존'이 이어 세계속의 한류를 선도하는 드라마, 뷰티, 패션을 주제로 한 취향저격 테마체험 '서울 페션존', '서울 뷰티존', '서울 패션존'이 조성된다.

취향저격 테마체험(1)-서울 드라마존 : 공중파 및 종편, OTT를 통해 송출된 한국 인기 드라마를 소재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한다.

취향저격 테마체험(2)-서울 뷰티존 : 서울 명소 등의 도안을 활용한 네일아트, 서울의 풍경을 담은 향수 체험 등 서울 방문을 특별하게 할 K-뷰티 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연계 행사가 마련된다.

취향저격 테마체험(3)-서울 패션존 : 퍼스널 컬러 테스트 등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트렌드를 경험하고 나만을 위한 맞춤형 K-패션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어서, 음식, 전통공예, 문화예술 등 서울 각지에서 즐기는 서울 체험관광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매력만점 서울 체험관광 마켓 '서울관광 편집숍'이 열린다.

한지공예, 전통문양 캔들만들기 등 현장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 및 가족공예, 다과 등 체험관광 업체의 상품 판매 부스 등이 운영되며, 서울의 전통과 현대 디저트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서울스타일 디저트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5월6일에는 잠수교가 다양한 K-food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 브릿지 맛-켓'으로 변모한다.

외국인 관광객 필수코스인 K-편의점을 잠수교 위에 편입함으로 구성되어 환전부터 한강 야외명박까지 K-편의점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러 식품기업의 참여로 다양한 한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녁시간(20:00)까지 운영하여 한강의 석양과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장이 조성되며,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잠수교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봄날의 한강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브릿지 맛-켓'은 대표 편의점 기업 CU와 농심, 대상, 오뚜기 등 한류를 이끌어가는 식품기업



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여 참여,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 할 예정이다.

서울의 대표 매력 공간 중 하나인 한강에 가면, 신선한 봄날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드론 라이트쇼'를 만날 수가 있다.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독섬 한강공원에서 내차례 공연이 펼쳐진다.

4월29일 서울페스타 2023 전야 공연을 시작으로 5월1일, 5월5일, 5월6일 총 4회, 2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만의 특색있는 매력들을 다채로운 컬러의 드론 라이트쇼로 표출하는 드론라이트쇼는 서울마다 다른 주제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4월28일~5월7일 10일간 명동에서는 유명 K-아티스트와 협업하여 명동일대를 갤러리로 장식할 '명동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명동 내 공실 상가, 노점, 지하철역, 도로 등을 예술 벽화 및 래핑으로 장식, 명동 거리 곳곳이 예술작품이 되는 명동 갤러리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초대형 벌룬 퍼레이드 및 포토존 운영, 스탬프 투어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롯데백화점이 주최하는 명동페스티벌은 서울페스타 2023의 일환으로 기획된 지역상생 행사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명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광장, 노들섬 등 서울의 대표 명소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동시에 열려 서울 전역에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울 쇼퍼페스타 : 페스타 기간(4.30~5.7.)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 전역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린다. 숙박, 면세점·쇼핑몰, 공연·체험시설 등 업체가 참여해 최대 50%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예정이며, DDP디자인스토어 및 서울공예박물관도 세일 행사에 참여하여 관광객에 다양한 쇼핑 기회를 제공한다.

서커스 페스티벌 : 5월 5일~5월 7일에는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아크로바트, 저글링 등 서커스 공연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서커스 체험 프로그램,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 11'이 열린다.

분야별 음악공연 : 4월 28일~4월 30일에는 재즈 아티스트 공연, 국악 융합 공연 등으로 구성된 '서울재즈 페스타'가, 5월 6일~7일에는 클래식, 인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구성된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이 노들섬에서 개최되며,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5월 5일~6일 남산초이스(소리극 축제)가 개최되어 관광객에게 다양한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태권도 특별공연'(5.1, 서울광장), 'K-POP댄스 플래시몹'(5.6), '한강 봄 페스티벌'(5.5~7) 등도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가 본격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의 신호탄인 만큼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 서울페스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서울페스타 기간 외래 관광객의 서울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 트렌디한 서울의 매력을 체험하는 고품격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은 "이번 '서울페스타 2023'은 K-POP 공연부터 뷰티, 미식을 포함한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까지 생생한 서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기획했다"며 "'서울페스타 2023'이 서울관광 재건 및 붐업의 신호탄이 되고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경수기자

서대문구, 스마트 안심 안산자락길 조성한다



서대문구는 내달 초까지 관내 관광 명소인 안산(鞍山) 일대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심 안산자락길'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유무선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안산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사업 대상 구역은 서대문구 중심에 있는 안산(鞍山) 전역(193만 3천 763㎡)이다.

구는 이곳에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는 자가정보통신망(6km)을 구축한다.

또한 안산자락길 전 구간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무선접속장치) 40대를 설치한다.

각종 구정 정보와 안전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전자안내판)'도 4곳에 세운다.

트 알리미'는 6대를 설치한다. 이 장치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상태를 파란색(좋음), 녹색(보통), 노란색(나쁨), 적색(매우 나쁨) 등 4가지 색상과 표정 이모티콘으로 나타낸다. '다기능 스마트폴'도 15곳에 세운다. 여기에는 공공 와이파이,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알리미 외에도 LED 보안등과 지능형 CCTV가 장착된다.

특히 지능형 CCTV는 영상에 대한 객체 인식(사람, 사물), 행동 분석(무단 투기, 쓰러짐, 폭행 등), 재난 감시(화재, 연기) 현황을 '서대문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제공해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성현 구청장은 "스마트 안심길 조성으로 많은 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산(鞍山)을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스마트 서대문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영등포구, 스마트하게 독거 어르신 365일 24시간 챙긴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 300 가구에 AI 말동무 스피커로 촘촘한 돌봄 복지 제공

영등포구가 촘촘한 돌봄 복지를 위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제공하는 '행복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 커뮤니티 사업'은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 300명에게 AI 스피커를 보급했다.

AI 스피커는 ▲1:1 감성 대화 ▲음원 및 희망 글귀 스트리밍 ▲날씨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정서를 돌본다. 또한 ▲치매예방 두뇌운동 ▲맨손 체조 ▲복악 지도 알리미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도 관리한다. 특히 AI 스피커가 독거 어르신의 위급하거나 긴급한 목소리를 인식하게 되면 24시간 서비스 관제센터와 119가 긴급 출동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어르신이 부정적인 단어나 감정을 말하면 AI 스피커가 전문 상담사의 심리 상담도 연계한다.



박향신기자

"영상으로 송파구 홍보해요!" 영상크리에이터 모집

송파구가 영상으로 지역 구석구석과 다양한 사업을 참신하게 소개할 '제3기 송파 영상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송파 영상크리에이터'는 2020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3년 간 송파구의 정경과 문화, 생활 정보를 개성 넘치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구 대표 유튜브 채널 '송파TV'를 통해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5명의 영상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며 송파구 시장투어, 벚꽃 맛집, 자전거수리센터,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참살이실습터 등 총 34편의 영상으로 구성 소식을 친근감 있게 전했다.

특히, 유튜브 숏츠로 제작된 '반려견놀이터' 영상은 지난 12월 1일 업로드 5일 만에 조회수 2,276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올해에 활동할 영상크리에이터 3기는 오는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분야 제한 없이 '송파'를 주제로 이야기가 가미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송파구를 대표하는 유튜브로 구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운영하고, 송파구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형식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3개월(개인 혹은 단체)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팀은 제작 영상물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도 실시한다.

신청은 송파구청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대표 영상물 1편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발표는 3월 16일 개별 통보

최경수기자

"수원의 자랑스러운 여성들을 기억합니다"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해 1975년부터 UN이 지정한 날이다. 수원에도 자랑스러운 역사 속 여성들이 있다. 수원의 명예를 드높인 공적으로 귀감이 된 인물을 선정해 조명하고 있는 '수원시 명예의 전당'에 현역인 김향화(1897~미상), 안점순(1928~2018), 이선경(1902~1921) 등 세 명이다. 어두운 시대 상황과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딛고 수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들의 삶을 기억해보자.

◇'총칼 앞에서 의로웠던 기생' 김향화

김향화는 일제 강점기 때서 총칼 앞에 의롭게 맞선 수원의 기생이었다.

1897년 7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향화의 본명은 순이었다. 생계가 어려워 불과 15~16세 때에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했지만, 18세가 되던 해에 이혼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생계가 어려워진 가족들이 수원으로 이주하면서 김향화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기생이 됐다. 1918년 발행된 '조선 미인보감'에서 김향화는 검무와 승무에 능하고 구슬프고 애절하게 노래를 잘한다고 소개됐다.

당시 수원의 기생들은 의기가 높았다. 1월 21일 고종황제가 승하하자 27일 20여명의 수원기생들이 상복을 차려입고 서울 대한문 앞으로 가 망곡재를 올린 내용이 매일신보에 기록돼 있을 정도다. 또 자선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수원상업강습소 학생들을 위해 내놓기도 하는 등 높은 민족의식으로 사회적 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1919년 3월 들불처럼 번졌던 수원지역 만세운동 중 김향화는

중심으로 한 수원예기조합 기생들은 일제의 총칼에 용감하게 맞섰다. 3월 29일 자혜의원(화성행궁 봉수당)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던 30여명의 기생들이 경찰서 앞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고 만세를 외쳤다. 선두에는 김향화가 있었다. 일본 경찰과 수비대가 총칼을 들이대며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합세해 시위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김향화는 경찰에 잡혀 주모자로 지목됐다.

이후 김향화는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징역 6개월 판결을 확정 받았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석객으로 참석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19년 10월 가솔출한 김향화는 수원으로 돌아왔다. 이름을 '우순'이라고 바꾸고 지내다가 서울로 이주했다는 것 외에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난으로 기생이 되어야 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향화에게는 2009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수원시가 공훈을 발굴해 서훈 신청을 이끌었으며, 표창장과 메달은 수원박물관 수원의 독립운동가 코너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드높은 의기를 전하고 있다.

◇'고통을 딛고 평화를 만든' 안점순 안점순은 끔찍했던 위안부 피해를 세상에 널리 알리며 수원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평화활동가다.

1928년 12월 2일 서울에서 태어난 안점순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효심 깊은 소녀로 자랐다. 안점순은 '방앗간 앞으로 모이라'는 말에 저울을 올려서던 열네 살, 트럭에 그대로 실려 어머니와 생이별했다. 어딘지도 모를 사막 같은 곳에 끌려가 고통

스러운 생활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텼다. 전쟁이 끝나 버려진 안점순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광복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석 달을 앓아 누웠던 안점순은 또 다시 전쟁을 겪으며 피난생활을 하는 등 고된 삶을 이어갔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1991년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공개된 뒤 조카가 피해자로 등록만 했을 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단체 등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 끝이 없던 75세 안점순은 세상으로 나와 낯날짓을 시작했다.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에 참석하고, UN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국제노동기구 심포지엄에 참여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전쟁의 피해를 날같이 밝혔다.

안점순의 활동은 수원지역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활동의 밑거름이자 원동력이 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립기금 7천여만원을 모아 2014년 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 평화비가 세워졌다. 또 이를 계기로 수원평화나비가 창립돼 수원시와 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유럽 최초의 평화비를 세우려 했으나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됐다.

안점순과 수원시민의 끈질긴 노력은 2017년 3월 독일 레겐스부르크 인근 네팔 히말라야 파비용 공원에 '순이'라는 이름의 소녀상을 세우는 결실을 맺었다. 89세 노인이 된 안점순은 제작식에 참석해 "힘찬 세상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1년여 만인 2018년 3월 30일 고단했지만 아름다운 삶을 마감했다.

수원시는 고통을 딛고 평화운동가로 거듭난 수원의 자랑스러운 여성

안점순을 수원시민사회장으로 배움하고, 명예의 전당에 수원을 빛낸 인물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내에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만들어 그의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

◇'독립을 위해 불태운 열아홉 열정' 이선경

'수원의 유관순'으로 알려진 이선경은 꽃 같은 19세의 나이에 순국한 수원지역 여성 독립운동가다.

이선경은 1902년 5월 수원군 산루리(현 수원시 중동)의 유복한 가정에서 2남2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1918년 수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숙명여학교로 진학해 1919년 3월 만세시위에 참여해 구속됐다 가 무죄 방면됐다. 특히 수원지역에서 김세환의 시위 계획에 참여한 이선경은 각지의 연락업무를 담당했던 여성동지들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선경은 1920년 6월 서호 부근에서 박선태 등과 만나 수원 최초의 비밀결사 '구국민단'을 결성하고, 임원으로 활동했다.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통학하는 지식인 청년들을 주축이 되어 매주 금요일마다 삼일학교(현 매향중)에서 만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활동을 알리는 내용을 수원지역에 배포하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이선경을 비롯한 여학생들은 임시정부의 간호원이 되어 독립운동을 돕겠다는 맹세를 했다. 그러나 두 달여 만에 구국민단의 활동이 발각되면서 이선경도 체포되고야



말았다.

이선경은 체포 이후 일제 경찰에 심한 고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21년 4월까지 140일간 구류됐는데, 이 기간 병을 얻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재판일이었던 1921년 4월 12일 결석재판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방면된 이선경은 수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지 9일 만인 4월 21일 순국했다.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다고 한다.

이선경은 심문과정에서도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석방된다면 다시 이운동을 벌일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석방되어도 다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습니다"라고 답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선경은 순국 91년 만인 지난 2012년 3월 1일 건국포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수원시는 명예의 전당에 그 자랑스러운 수원의 여성 이선경을 현역해 기억하고 있다.

◇수원에서 만나는 세계 여성의 날

수원시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을 기념한 연계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오는 10일까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의 로비와 계단 등에서 진행되는 특별프로그램 '2023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이다. 전시는 역사 속 여성인물과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

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 출신 서양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1896~1948),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여성운동가인 이태영(1914~1998),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권기옥(1901~1988),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 최은희(1904~1984) 등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속 여성 인물 10여명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898년에 발표돼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효시로 볼 수 있는 여권통문에 대한 설명과 여성운동 발전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나부터 돌봄 챌린지 #소중한 나를 알아주세요'다. 오는 11일까지 나를 알아주는 사진을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8일 가족여성회관 교육관 1층 로비에서 세계 여성의 날 역사와 의미를 알려주는 전시와 응원 메시지 게시, 챌린지 참여자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여성인권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차별 없이 성평등한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시흥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향상할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주력

시흥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오는 14일까지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70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 무상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차상위계층 가구·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신청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국민기

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3월 2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추진됨에 따라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우용/기자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혹서기 저소득 시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3월 24일까지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가 물가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3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 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28개 업체에 7억3천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2023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점포 시설개선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대상	고양시 내 창업 3개월 이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3. 3. 6.(월) ~ 3. 24.(금) 18:0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문의번호	031-8075-8507, 3551, 3553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고양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화성시,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보존방안' 학술대회 개최



화성시가 7일 모두누리센터에서 '화성의 무형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소멸해가는 지역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국내 석학과 전문가 등 40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화성시 무형문화유산 기초 및 심화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화성음악(김혜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화성놀이(이경덕 한양대학교 교수) ▲민간신앙(유형동 한신대학교 교수)으로 나눠 각 분야의 무형문화유산 현황과 발전방

안이 다뤄졌으며, 마무리로 흥태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화성 무형문화유산의 연구성과 검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옥경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차선혜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신소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 허용호 경주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김형희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화성시 무형문화유산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 첫 번째 자리로 의미가 크다"며, "청년이 된 화성시가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달내린 '2023 경기국제보트쇼' 참관객 6만 8천 명 '역대 최다'

한국남시박람회 동시 개최, 역대 최다 참관객 약 6만 8천 명 방문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2023 경기국제보트쇼'가 6만 8천여 명의 방문객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5일 사흘간의 향해를 마쳤다. 이는 역대 최다 관람객 규모로 한국국제남시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며 이룬 성과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작년 대비 약 1.5배 늘어난 전시 면적에 보트와 낚시 외에도 캠핑, 카라반까지 전시 범위가 넓어지며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관람 기회가 제공됐다. 이에 주말 내내 킨텍스 1전시장 주차장이 만차되는 등 해양레저 관련 기업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도 3대 보트 제조사인 스타마린, 시스타마린(화성), 빅베어마린(안성)의 피싱보트는 현장에서 총 30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의 제품상 해수부 장관상 수상기업인 (주)모토젯의 전동 서퍼보트는 해외 5개국의 대리점 계약 추진과 160대



분량의 구매 문의가 잇따랐다. 2023년 올해의 제품상 경기도지사 상에는 선박용 전기추진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주)일렉트릭과 하이브리드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보트인 (주)모토젯의 전동 서퍼보트는 해외 5개국의 대리점 계약 추진과 160대

인 카리스마 FW630을 출시한 대한 FRP마린과 선박 침수 위치 가시화 시스템을 출품한 (주)해양안전메카가 올해의 제품상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해양레저의 미래기술을 볼 수 있는 친환경 하이테크관을 운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주행 시험 선박 '단비'호를 직접 전시

했고, 삼성중공업은 자율운항 기술인 SAS(Samsung Autonomous tem)를 선보이는 등 대형조선 선박의 기술이 레저 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제컨퍼런스에서 '해양레저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선도 기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크레이그 리치(Craig Ritchie, IBI 북미특파원)는 "세계 해양레저산업은 하이테크기술이 세계 레저 보트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갖춘 한국이 해양레저시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한국 스스로 더 확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레저는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더욱 발전하는 산업"이라며 "해양레저산업의 미래 가치가 높은 만큼 경제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성시, '2023년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 개최

김보라 시장 "기회의 안성, 눈부시게 발전하는 안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3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민과의 정책공감토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7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통혁신의 자리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물론, 민선 8기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지역을 대표하는 남사당 배우들이 풍물단의 줄타기 및 흥겨운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15개 읍면동별 주민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진행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어 김보라 안성시장은 '위기의 시대에, 기회의 안성에서, 안성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특히 김보라 시장은 "그동안 안성은 위기를 기회로 변화하는 각종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왔다"며, "올해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호수

관광사업과 문화도시, 무상교통, 아동친화 등을 화두로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쓰레기 적체와 관련된 현재 상황에 대해 "주민협의체 및 시의회와 함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현 사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초청 인원이 많아 시민들의 건의 사항을 모두 듣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하반기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는 정책공감토크를 추진해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광명시민·광명시·정치권 한목소리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외쳐



광명시민과 광명시, 광명시 정치권이 7일 한목소리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선언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박승원 광명시장·임오경(광명 갑)·양기대(광명 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적 훼손되고, 노온정수장 오염으로 수도권 시민 100만 명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구로구민의 민원 발생 요인인 차량기지를 이웃 지자체로 고스란히 넘기면서도 경부선 선로는 그대로 남아 구로구민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명시의 실질적 대중교통수단 확보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에서 제시한 20분간격의 셔틀 열차는 광명시민에게 효용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없고, 계획 과정에 피해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국책사업으로 무조건 백지화되어야 한다"며, 기자회견 이후 모두가 한 뜻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3월 2

일 광명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기재부·국토부 청사 앞 대규모 시위에 이은 추가 대응이다. 이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명운을 판가름할 재정사업분과회의가 지난 2월 23일 기재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경 공개될 전망이다. 향후 1인 시위, 범시민 청원, 정치·행정적 대응에 중앙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로, 이 일대가 도심화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원으로 촉발된 차량기지 이전 논의는 2005년 6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면서 가시화했고,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 이에 국토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등의 조건을 내세워 광명 이전을 추진했지만, 보금자리지구는 LH 경영성 악화로 지정 4년 만에 해제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차량기지 지하화도 물거품이 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변경된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난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광명시는 민-민간 갈등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갈등을 겪어 왔다. 윤용민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2차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 제안 수용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차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및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존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존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영기자

안동시 올해 143억 원 투입 농업용수 공급확대 '농촌시름 덜어'

- 기후변화 농업재해 대응 46억여 원 투입, 양수장·저수지 정비
- 안동호 상류부에 위치해 농업용수 취수 불가한 와룡 산야 10억 원 투입
- 예안 도촌, 녹전 신평 등 급수 구역 확장 추진

안동시는 올해 농업인의 편리한 농업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1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우선,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46억6천만 원을 들여 용·배수로, 양수장, 암반관정,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 33개소를 정비한다.

또한, 안동호와 인접하나 상류부에 위치해 농업용수 취수가 불가한 와룡 산야리 상사골 지구 일원에 추진 중인 안동 북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0억 원, 이 용수를 활용한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해 연장 16.8km의 관로를 설치, 66개소에 추가 급수를 실시한다.

그리고, 예안면 도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물리면적 35ha로 급수구역을 확장한다. 녹전면 신평리 황정골 지구에도 5억 원을 투자해 양수장을 설치하고 10ha의 급수구역을 확장한다.

이외에도, 암반관정 개발 등 4개소의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억 원, 쾌적한 농업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6개소 주민숙원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

또, 기상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일직 운산2 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은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01억1천만 원 중 2023년 14억 원의 예산으로 보상협의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임하 오대지구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도비 80%, 시비 20%)은 올해 예산 9억 원으로 2023년 1월에 착공했으며, 남신 신석지구는 올해 예산 7억 원으로 실시설계구역 및 본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에 대비해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한층 더 강화 하겠으며, 앞으로



도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남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교재에 담다

- 지역 특색 담은 초등 환경 교재『우리가 만드는 초록경남』개발
- 3~4학년용, 5~6학년용 2종...수업에 활용하도록 1만 부 배부

경상남도교육청은 우리 지역 초등 학생들이 지역의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 환경 교재인 『우리가 만드는 초록경남』을 제작·배부하였다고 6일 밝혔다.

교재는 3~4학년용, 5~6학년용 2종으로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해양오염, 녹색소비, 채식, 생물다양성' 총 7개 영역 14차시 분량이다. 환경 관련 도서, 영상, 도내 환경 체험처 등을 부록에 담아 활용도를 높였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4월에 생태전환교육 실천교사단을 중심으로 집필위원을 구성, 『우리가 만드는 초록경남』을 제작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지난해 2학기 수업 시간에 시범 활용한 다음, 교사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해 이번 3월 신학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재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실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 생태전환교육에 쉽게 접근해, 교과·직·체험 등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학생용 익힘책과 교수용 파워포인트(ppt) 자료, 동영상 등을 같이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높였다.

경남교육청은 교재 1만 부를 배부하고 교육청 누리집에 교재 파일과 관련 자료를 올려 활용 기회를 넓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수업혁신을 통한 생태전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우리가 만드는 초록경남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의 원인과 결과,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생태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통영시, 2023년도 논 타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신청

통영시는 벼 재배감축을 통한 적정 생산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 논지는 2022년 벼를 재배한 논지 중 2023년 신규로 타 작물로 전환한 논지여야 하며, 2022년 벼에서 타 작물로 신규전환 후 2023년에도 계속 타 작물을 재배하는 논지도 가능하다. 지원품목 및 단가는 다년생을 제외한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두류는 ha당 100만원이며 여기에는 휴경도 포함된다. 단, 하계조사료의 경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재배한다면 ha당 430만원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6월 23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의 재배 이행여부를 확인 후 11월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

업기술과 환경농업팀(☎ 650-6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준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3월 간부회의에서' 코로나 이전의 업무정상화로 '대구의 봄'을 맞이하자!

- 굵직한 시책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선제적 대응 지시
- 봄철 산불방지 및 해빙기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 전력 추진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은 3. 6.(월)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군위군 편입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제2국가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은 시공항공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제2국가산단(스마트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업 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시공항공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을 명심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교통국의 신학기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추진 보고에 대해, 신암선열공원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 위험성을 현장 점검하고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는 기업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 후 투자 진행 상황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몰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부터 신중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롯데몰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맞춰 재

봄소식 전하는 노란 물결, 포항 호미곶에 유채꽃 '활짝'

호미반도 경관농업 단지, 호미반도 유채꽃 개장식 앞두고 유채꽃 장관



한반도의 동쪽 끝, 호미곶에서 봄 향기를 머금은 유채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호미곶 유채꽃은 3월 중순 활짝 피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4월 중순까지 만개한 유채꽃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미반도 경관농업 단지는 2018년 조성 시작해 매년 10만명 이상의 유채꽃·유채보리·메밀꽃·해바라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50ha(15만평)로 경관농업 단

지를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호미곶이 만개하는 3월 하순 경 호미반도 경관농업 단지에서 '2023년 호미반도 유채꽃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18일과 19일 양일간 비누만들기, 화관만들기 등 유채를 활용한 공예 체험을 부대행사로 진행하고, 야간관람과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내년부터 추진해온 구룡포 경관농업 농특산물 체험판매장 건립이 완료돼 개장식을 함께 준비 중이다.

유육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활짝 핀 유채꽃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포항의 매력을 즐기길 바란다"며 "사계절 다양한 경관 작물을 선보여 명품관광명소로 농민과 지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2023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동호회 모집

(재)달성문화재단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일일 속 문화 향유 확대 및 생활문화동호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

'달성 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는 달성군에 활동공간을 두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5년째 이어오고 있다. 관내 생활문화동호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비와 생활문화 프로젝트(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전시 등의 자체 발표회) 수행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음악, 미술, 댄스, 공예, 문학, 연극은 물론 취미·여가 활동인 요리, 다도, 꽃꽂이, 발명품 개발 등 생활체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대상은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만 19세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호회이며, 동호회 간 연합지원과 신규동호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최대 30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동호회의 특성에 맞게 역량

강화 또는 발표활동으로 유형이 나누어져 있어 신청 시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된다. 지원금은 역량강화 유형은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발표활동 유형은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동호회는 생활문화 코디네이터의 프로젝트 기획 컨설팅 및 행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을 바탕으로 최소 1회 이상(발표활동 유형은 최소 2회 이상)의 생활문화 프로젝트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결과발표회는 선정동호회들의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이 펼쳐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여 관내 생활문화동호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공모 접수는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달성문화재단으로 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남해군 '독일마을맥주축제 기획단' 출범

- '독일마을 + 인근마을 + 남해군 +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협업
- "콘텐츠 확충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축제 업그레이드 도모"



남해군의 대표 축제이자 매년 흥행 기록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독일마을맥주축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해군은 지난 3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독일마을맥주축제 기획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독일마을·인근마을·남해군·남해군 관광문화재단'으로 구성됐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 향후 축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독일마을맥주축제는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돼 왔으며 전국적인 명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길러콘텐츠 도입과 민관합동추진 체계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독일마을맥주축제 기획단'은 남해군 관광경제국장과 전국이동장현합

회 남해군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게 되며, 기획협력팀과 콘텐츠팀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실무 업무는 남해군과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담당하게 되며, 전문성이 그룹인 자문위원을 두어 독일 정체성이 잘 구현된 축제 아이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 회의에서는 2023년 맥주축제 개최시기, 면단위 서틀버스 활용, 인근 마을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장충남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독일마을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기획단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개선 사항 등을 잘 반영해 성공적인 축제로 일궈가자"고 밝혔다. 이윤준/기자

경북도, 봄철 산불방지 대응태세 점검 긴급 영상회의 개최

이철우 도지사, 산불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 강조! 산불예방 총력대응 당부

경북도는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태세 점검을 위해 지난 6일, 각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효과적인 산불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부단체장이 산불방지 활동을 직접 챙길 것을 당부하고 특히, 청명, 한식, 식목일을 앞두고 성묘·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대응 추진대책을 점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3월 6일 기준 34건의 산불이 발생해 192ha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고 이중 14건(38%)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발생했다.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제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함

으로써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시·군별가 시 산불 다발 시·군에는 패들터를, 미 발생 시·군은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실히 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군에서도 지역책임관을 편성해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 위주의 읍면동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도청 실국장들도 시·군으로 출장해 산불예방활동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예전, 전국에 산불발생으로 처벌한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에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낸 A씨는 징



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1994 ~ 2011년까지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10년에 4억2천만원 벌금을 배상한 사례가 있었다. 윤근수/기자

경북 울진군-대구 수성구' 자매도시 간 품앗이 기부

- 출향인 기부도 꾸준히 이어져, 울진 고향사랑기부제 탄력
- 손병복 울진군수, 두 도시 간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기대

울진군은 자매도시인 대구 수성구 청(시장 김대권)과 상호 품앗이 기부를 실시 했다. 이번 품앗이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매결연 도시 간 상호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출향인들의 따뜻한 손길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울진군 평해읍이 고향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산 동구지회 이한우 회장이 100만원을 기탁했고, 은정면 출신 학교법인(주)진학학원 이사장 이영희씨가 500만원을 기탁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품앗이 기부를 계기로 두 도시 간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지 바란다"며 "또한, 울

진에 기부하여 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주민들 특상 거주지(기초,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iloovegohyang.go.kr)과 오프라인(전국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 금액 30% 한도의 담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장문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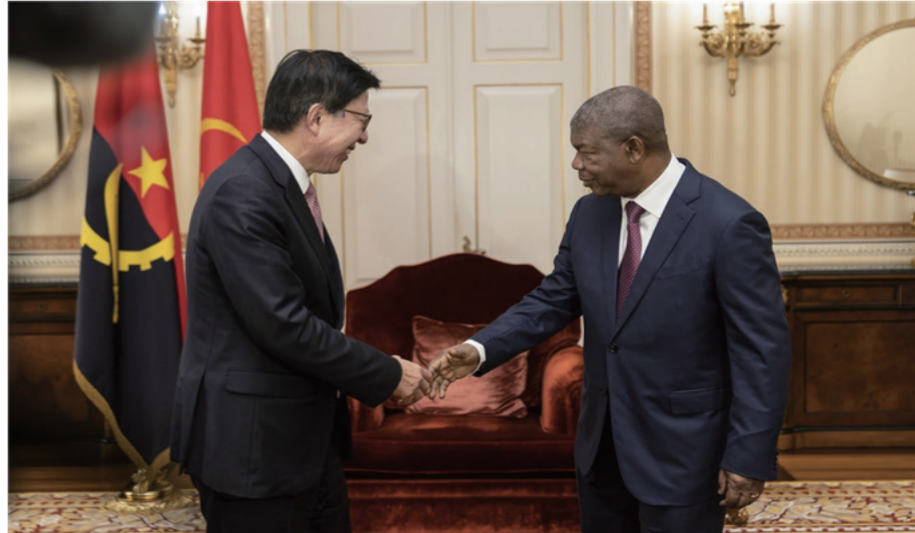


국가별 맞춤형 실질 협력사업 추진으로 아프리카 내 유치 지지 기반 확보

박형준 시장,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마치고 3일 귀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선 박형준 시장이 지난 2월 22일부터 7박 10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3일 귀국했다. 박형준 특사는 레소토왕국·남아프리카공화국·앙골라공화국을 방문, 대통령, 국왕, 총리, 부총리 외교장관, 재무장관, 교통부 장관 등 각국 최고 위 인사를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를 요청,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한 양국간 실질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상세히 논의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대한민국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조하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우리 부산과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디지털 전환·국가 및 개인 간 격차 문제 등 전세계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세계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고 보다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하다고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개최도시로서 부산의 여건과 역량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중점 교섭국가 대상 전략적 순방뿐 아니라 방문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구성해 이뤄졌다. 특사단은 특사단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외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 대사관, 한국공항공사, 수출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 등 우리 측 관련기관과 해외주재 우리 기업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특사단은 방문 대상국과 그간 협의해온 교류·협력사업을 실제로 구체적이고 내실있게 이행해 상대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교섭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에 중장기적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사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번 순방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해 교섭 상대국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한국형 유치 교섭모델'을 잘 보여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실제 박형준 특사는 각국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부산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축적한 고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하나의 솔루션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섭국에 특화된 개발/발전 수요를 반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식량·보건,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인류가 당면한 공동 위기와 도전에 더욱 효율적, 실질적 대

응 방안을 함께 모색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면담인사들은 '부산 이니셔티브'에 대해 공감, 향후 보다 내실있는 공동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박형준 특사는 부총리, 외교부, 재무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배석해 내각회의를 방불케 한 레소토 마테카네 총리와 면담시 숙원사업인 '모슈에슈에 1세 국제 공항' 개선 사업, 신발·섬유, 농가공, 관세행정 현대화/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레디 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과 만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현안인 전력, 에너지믹스, 원자력,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세부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앙골라에서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을 만나 선박, 수산업, 항만, 교육, 정보통신기술(ICT), 인재양성 분야 등에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도시외교 차원에서 오맹루안다 주지사를 만나 '부산시와 루안다주간 자매도시 체결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특히, 이 의향서에는 루안다 주정부 차원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이 직접 루안다 주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 박형준 특사는 이번 순방에서 순방국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아프리카 내 대한민국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각 방문국에서 현지 언론과 인터뷰도 가졌다. 현지 언론들은 박 특사의 이번 순방에 대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이며, 이번 순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레소토에서는 레소토 국영방송(LNBS)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남아프리카 현지 언론인 프리토리아 뉴스(Pretoria News)와 인터뷰 시 더스타(The Star), 더 머큐리(The Mercury), 케이프 타임즈(Cape Times) 등 남아프리카 현지 영자 일간지 3곳에도 동시에 보도됐다. 또, 앙골라에서도 TPA, ANGOP, Rede GIRASSOL, TV ZIMBO, CIAM 등 국영방송 및 관영통신사와 인터뷰를 가져 양국 간 협력 추진 현황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비전, 준비 현황, 부산시의 여건과 역량



에 대한 교섭국 내 인식과 이해를 제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프리카는 유럽 다음으로 많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보유한 만큼, '빌드업 외교'를 통한 집중적인 유치 교섭활동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 내 부산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시외교 외연을 확장하는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대한민국과의 투자·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순방시 방문국과 는

의한 실질 협력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대사관, 관계부처, 기관, 기업 등 힘을 모아 면밀히 추진돼야 할 것이며,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가 종료된 다음 아프리카를 한 번 더 순방하거나 초청행사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며, 많이 찾아갈수록 회원국의 마음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순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다졌다. 송종진/기자

'영주시의 미래는 여러분입니다' 영주시, 지역인재 정착에 총력 캠페인 펼쳐

- 지역대학 방문해 대학생 지원사업 홍보, 전입 유도
- 주소이전 대학생→기숙사비(전·월세)지역출신이 지역대학에 진학→생활자금 지원

경북 영주시는 지역인재 지역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경북전문대학교와 지난 6일, 동양대학교에서 각각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대학 재학생 지원사업과 시 전입시책 등을 안내하며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시 인구정책을 주관하는 미래전략실 직원들과 각 대학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타지역에서 지역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기숙사(전·월세)비를 지원하는 기숙사비(전월세)지원사업과 지역 출신이 지역대학에 입학하면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영주시는 타 시·군·구에서 영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고 지역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생에게는 기숙사(전월세)비를 매년 100만 원씩 재학기간(4년기준 400만원) 동안 지원하고, 영주지역 출신이 지역 대학에 입학하면 생활자금으로 매년 50만 원씩 재학기간(4년기준 200만원) 동안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중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지역학교에 개설해 학생들이 쉽게 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함께한 지역대학 학생처 관계자들은 대학생 대상 지원사업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은 학생들이 시로 전입해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영주시장은 "지역대학 재

윤근수/기자

의성군, 현안업무 추진상황 점검 릴레이 보고회 개최

김주수 의성군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 당부"

의성군은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군청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계획 및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다부서 연계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하여 군청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개최했다.

군은 2024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은 49건, 953억원으로 그 중 신규사업은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27억원) ▲신평교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22억원) ▲의성군(안계, 단밀)노후하수관로개량사업

(11억원) 등 19건, 122억원이며, 계속사업은 ▲금성하수관로정비사업(252억원) ▲의성동부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110억원) ▲쓰레기산생태축복원(39억원) 등 30건, 831억원이다.

올해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120억원) ▲지역특화형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19억원) ▲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10억원) ▲스마트시티 조성(10억원) 등 122건, 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확보액 149억원(26%) 증가를 목표로 한다.



또한 다부서 사업 추진현황 점검으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향후 공간 구상 전략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형 시책 사업 표준 데이터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은 대상액 3,837억원 중 73%인 2,801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했다는 자체 목표를 설정하여, 행정안전부 기준 55.7% 보다 17.3%, 경상북도 기준 65%보다 8% 높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국·도비 확보/공모사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군청 주요현안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부서 간 세심한 협업이 필요하다"라며 "전 부서에서는 신규예산 확보와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영덕군가족센터, '몸튼! 맘튼! 탁구교실' 운영

1대1 개인지도로 결혼이민자 자아실현과 사회 활동 증진

영덕군가족센터(센터장 이안국)는 오는 10일 영덕탁구장에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몸튼! 맘튼!' 탁구교실을 개강한다.



이번 탁구교실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센터는 교육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영덕군체육회 신미숙 코치로부터 매주 2시간씩 탁구의 기본기술과 경기 방법 등을 익히는 1대1 개인지도 제공한다. 또한, 경기 경험 향상을 위해 개인 지도 후에는 다문화가족인 영글로별 회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심하고 개인지도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가족센터(☎730-7387)로 문의하면 된다. 장문화/기자

이날 탁구교실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센터는 교육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영덕군체육회 신미숙 코치로부터 매주 2시간씩 탁구의 기본기술과 경기 방법 등을 익히는 1대1 개인지도 제공한다. 또한, 경기 경험 향상을 위해 개인 지도 후에는 다문화가족인 영글로별

탁구클럽 방문식 회장 및 여타 클럽 탁구회원들과의 연습경기를 진행하고, 자체 탁구대회는 물론 지역 탁구대회에도 참가해 실력과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특히, 센터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예천군, 제9회 예천 도효자배 중고 단축마라톤대회 성료

'올림픽의 꽃' 마라톤 대회에 중·고등학교 240명 선수 참여

예천군은 지난 5일 제9회 예천도효자배 전국 중(5km)·고교(10km) 단축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중·고 육상연맹과 예천군 육상연맹이 주관했으며,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최병욱 예천군 의장,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김말수 예천경찰서장 등이 참가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했다.

중학교 70명, 고등학교 170명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남중부 배문중학교 ▲여중부 충북영동중학교 ▲남고부 배문고등학교 ▲여고부 영천성남여자고등학교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 우승자는 ▲남고부 전국고등학교 김도연(30분 51초), ▲여고부 서울체육고등학교 나현선(37분 27초) ▲남

중부 성보중학교 이영범(16분 17초) ▲여중부 성남여자중학교 송다원(18분 06초) 선수가 금메달을 수상했다. 홍순철 회장은 "우리나라 마라톤을 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 그동안 쌓아온 훈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육상의 메카 예천군에서 열린 대회가 마라톤 등용문으로 국내와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끈기를 보여주는 종목"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으로 육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4일간 예천스타디움 일원에서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며 아시아 45개국에서 1500여명의 국·내외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하운수 교육감 6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면담

- 원활한 학교 설립 추진 위해 이자 부과 철폐할 것을 요청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안전으로 상정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



하운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6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여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기장·정남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운수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 부산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지침이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

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업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훈령 적용이 적절하다 답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별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중진/기자

경주시, 공격적인 인센티브로 관광객 유치 '시동'

- 입장권 인증 이벤트 통해 온누리 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 10인 이상 단체관광 인센티브로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경주시가 지역 핵심 관광자원과 여행 패턴을 연계한 관광 빅세일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으로 관광객 물이에 나서고 있다. 인센티브는 ▲유료 입장권 인증으로 온누리 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국내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2가지 이벤트가 있으며, 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유료 입장권 인증 이벤트는 경주시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화랑마을, 토함산자연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3곳과 동궁원, 양동마을, 동궁과월지 등 관광지 10곳 중 지정 횟수 이상 방문한 입장객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숙박시설 1곳과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시 온누리 상품권 2만원, 관광지 4곳 이상 방문 시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을 각각 동궁과월지 매표소에서 입장권 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하며, 또 13곳 중 1곳 이상 방문한 입장객이 SNS에 해시태그를 포함한 방문 후기 업로드를 할 경우 동궁과월지 매표소에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국내외 10인 이상 경주 방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 1인당 1만원~1만5천원, 20명 이상 이면 1만5천원~2만원까지 인

센터가 주어지며, 또 수학여행단 및 외국인 단체 관광객일 경우 1회 최대 지원 금액이 200만원이며, 국내 단체 관광객일 경우 1회 최대 지원 금액이 100만원이다. 다만 지역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유료관광지 2곳 이상 방문 등의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1~2박의 체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는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여행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 관광마케팅팀(양정로 241-1 기린빌딩 6층)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는 단체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관광 실시 전 제출하던 사전 계획서 접수를 올해부터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어 동일 여행사 예산액의 최대 10%까지 지원 한도액 설정해 대상자를 다양화 하는 등 지역 방문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입장권 인증 이벤트 등 경주 빅세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단체관광 인센티브는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관광산업이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빠르게 변화되는 여행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만큼 관광도시 경주를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2023 경주 관광 빅세일 SNS 해시태그 이벤트

- 행사기간: 2023. 3. 6.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운영장소 중 1곳 이상 방문한 입장객
- 내용: 운영장소 방문 후 해시태그 (#경주여행, #경주관광빅세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포함해 사진 업로드 시 동궁과월지 관리사무실에서 게시물 확인 후 1인 1회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급
- 상품: 기념품
- 예선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www.gilm.or.kr)

2023 경주 관광 빅세일 입장권 인증 이벤트

- 행사기간: 2023. 3. 6.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운영장소 중 지정 횟수 이상 방문한 입장객
- 내용: 입장권 소지 후 동궁과월지 관리사무실 방문 시 입장권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 지급
- 상품: 온누리상품권 2만원
- 대상: 운영장소 중 4곳 이상 방문한 입장객
- 내용: 온누리상품권 1만원

이철우 도지사, 서유럽 방문 큰 성과 거둬...

- 안동소주의 세계적 브랜드화와 유럽 수출 본격 시도
-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 경북産 서비스로봇 생산 확대 약속
- 이탈리아 피에몬테주지사, 경북 방문해 투자교류 지속하기로 화답

경북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9박 11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 3개국 방문을 통해 지방정부간 교류와 함께 투자유치와 통상교류를 위한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안동소주 등 지역 전통주의 세계화와 수출 및 교류를 위해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을 방문한 경북 대표단은 위스키의 중심지인 스코틀랜드 모레이(Moray), 에든버러(Edinburgh)를 찾아 글렌 모레이(Glen Moray) 등 위스키 제조업체와 위스키 증류장비 제조회사를 둘러보고 스카치위스키협회(SWA)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Korea Foods, H Mart 등 런던 대형마트 2곳에서 개최한 안동소주 시음회는 현지인들로부터 깔끔한 맛으로 호평 받았고, 안동소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마트 관계자들은 영국 내 수입을 늘리고 한국의 대표 증류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영국 일정에 함께한 안동소주 등 6개 업체 대표와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도 공동 로고 개발과 품질표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생산 공정을 통해 안동소주의 세계적 브랜드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찾아 삼성, KT, SKT 등 국내 참가 기업인들과 만나 '메타



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 420만명의 피에몬테주 알베르토 치리오(Alberto Cirio)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양 지자체가 자동차, 2차전지, 항공, 농업, 역사도시 등 유사성이 많음을 확인하고 통상 및 투자교류를 지속해 가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알베르토 주지사의 경북 방문을 제의했고, 주지사도 조만간 경북을 찾기로 화답했다.

이 지사는 귀국일인 3일에는 베로나(Verona)의 포스코 현지공장(POSCO ITPC)을 둘러보고 유럽의 강화되고 있는 탄소배출 규제에 직면한 포스코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소환원방식 용광로 개발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간의 서유럽 출장 일정을 '경북 세일즈'를 위해 강행군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브랜드화와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경북의 제품과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메이드 인 경북'의 생산품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북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버스 수도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논의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과 KT의 초거대 AI '민음' 기반 기술을 경북의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과 치매 예방에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 서비스로봇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와는 올해 구미에서 생산하는 AI 서비스로봇 규모를 1000여대에서 2024년에는 2000여대로 대폭 확대해 경북을 서비스로봇의 글로벌 중심 제조기지로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

윤근수/기자

청송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및 생계안정 지원

- 23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시행
- 윤경희 청송군수, "예산 확보해 구직자 공공일자리 제공, 근로의욕 고취"



청송군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생계안정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을 3월 6일부터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신청을 접수한 뒤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 참여 횟수 등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신청자 122명 중 66명을 선발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0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참여자의 희망 분야를 반영해 환경정비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 18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였다.

상반기 사업은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근무 시간은 나이에 따라 65세 이상은 주15시간, 65세 미만은 주30시간 안에서 1일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일자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과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구직자들에게 공공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2023 행복학습센터 지정/학습프로그램 신청



봉화군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학습프로그램(주민강좌) 운영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기존 읍면 단위 주민 강좌를 행복학습센터로 전환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읍·면 주민 누구나 10명 이상으로 구성해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설 적정성 ▲참여

대상 및 규모 ▲사회 활동 참여도 ▲주민강좌 운영실적 등 4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센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2백만 원씩 총 20개 강좌가 지원된다.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족청소년과 평생교육팀 (054-679-6392)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으로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읍·면 단위 마을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양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

-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
- 오도창 영양군수, "이번 사업이 재취업기회로 생활에 보탬될 것"



영양군은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에 8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2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군청을 포함한 27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사회복지향상사업, 농어촌일손돕기사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관광자원 활용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지원사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지역민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통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북도 등 창업기업 활성화에 1,284억 쏟는다

전북도·전북중기청을 필두로 30개 혁신창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도 내 30개 혁신창업기관에서는 창업기업에게 사업과 자금 등 103개 사업에 1,284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성장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안태용 전북중기청장과 혁신창업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창업정책과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2023 전라북도 창업정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가로 신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도정보공사 외 4개 기관과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30개 창업 지원기관이 참여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 정책을 한 자리에 모아 종합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창업 지원기관과 전문멘토의 현장상담을 통해 사업호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안내를 해주는 등 창업·벤처기업 수요자 및 참여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날 전북도는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의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으로, 5대 추진전략인 ▲거버넌스 활성화,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 ▲클러스터 기반화,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지역별 특화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펀드 1조 조성, 스타트업타운 조성, 스타트업 100개사 집중관리 등 20대 핵심과제를 통해 예비유니콘 10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는 ▲사업화 지원, ▲기술산업 분야별 지원, ▲자금 지원 총 3부로 나눠 각 사업들의 핵심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즉석 질의 응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의 자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성장주기별, 지원유형별, 지원기관별로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2023 전라북도 창업정책 편람' 책자



도 제작해 배포했으며, '전라북도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 랩톱에서 전자책자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탄탄한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고 창업육성이 그 중요한 축이며 지역의 혁신기관 모두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 창업정책 한마당'은 전라북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창업 거버넌스 '전북창업기관협의회'의 협력 사업으로, 지난 2020년 25개 기관으로 발족하여 그 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지역 투자 인프라 활성화, 창업지원사업 확대 편성 등을 노력해왔다. 이남출/기자

익산 청년농업인, 선진 영농탐색으로 역량 강화

익산시가 청년농업인의 영농 활성화 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년농업인 학습모임인 '청춘어람' 회원 25명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충남 태안 일원에서 영농교류활동과 영농정보를 공유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국내 최대 허브 관광농원을 방문해 정원이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비밀이란 주제로 정월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6차 산업의 성공사례를 체험했다. 또한 ICT를 도입한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아쿠아포닉스 전문농장을 방문해 무비료, 무농약 재배농업으로 노지재배보다 90%이상의 물 절약으로 환경상 이점을 이용성 기능성 작물재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색다른 영농기술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인섭 청춘어람 회장은 "회원들과 영농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웠었는데 성공적인 영농시절을 견학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미래농업의 주역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들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 발굴, 지원으로 농촌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전주시, 외식 성공 창업의 꿈, '청년키움식당'에서 키워요!

농림축산식품부·aT 주관 청년키움식당 공모에 전주역세권 맛집창업교육관 선정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맛집창업공간에 외식 창업을 꿈꾸는 청년 예비창업자 육성하는 전용 공간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청년키움식당)' 신규 시행기관으로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청년키움식당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장 및 시설을 제공하고, 매장운영에 대한 교육과 실경험을 지원해 청년 외식 사업가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해 선정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기획과 메뉴개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참가팀 특성에 맞는 벤치마킹, 컨설팅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청년키움식당에서 꿈을 키울 청년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청년 등을 팀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접수 방법 등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외식산업학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면접과 실기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하는 팀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청년키움식당 전주점에서 차례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창업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거점공간인 맛집창업교육관의 운영을 위해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끔자 역할을 맡아

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전주맛집창업교육관 내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주민협의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전주대학교(외식산업학과)는 창업 관련 전문교육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현장 중심의 음식점 운영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상생을 이끌고, 지역 내 외식산업을 위한 외식 전문창업자를 육성한다는 각오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전주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성공적인 청년 창업의 결실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주택설비 지원한다

지방비 1억6000만원 투입, 선착순

진안고원의 깨끗한 봄을 마시자! 제19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진안고원의 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4년만에 현장축제로 관객들과 만난다.

7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광장에서 제19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열린다.

11일 10시 주광장에서 중평곡과 증산기원제로 축제가 시작되며 14시에는 주광장에서 고로쇠 비빔밥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출발! 숲 탐험대'가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고로쇠 골든벨' 등 특별 프로그램과 친환경 고로쇠 빙빙으로 화분 만들기와 찾아가는 미술체험관 등 체험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또한 진안홍삼축제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무료로 운영되는 인생사진관과 빠망을 이겨라 등의 프로그램도 또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더불어 고로쇠, 진안홍삼 등 진안고원 특산품을 활용한 각종 먹거리 부스 등이 운영돼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모두 호강시킬 계획이다.

축제의 주인공인 고로쇠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고로쇠물은 '빼어 이로운 물'이라는 뜻으로 자연이 준 갈송·마그네슘·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자연이 주는 특별 한정판 특산품이다.

축제 현장판매 뿐만 아니라 축제 첫날인 11일 14시 네이비쇼퍼라이브 진안고원물 채널을 통해 1시간 동안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3월 중순까지는 진안고원물에서 상시 구매할 수 있다.

남귀현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올해 고로쇠축제를 찾아주셔서 우수한 품질의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물 드시고 건강한 한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완주군이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민에게 정부 지원금 이외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7일 완주군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방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3~4월경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올해 1억6000만원을 투입하며 사업 신청 순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사업내용 및 참여업체리스트가 공고되면 참여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및 승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3kw 태양광의 경우 총사업비 약 516만원 중 국비 50%(258만원)에 추가



로 지방비 100만원을 지원받아 신청 가구 자부담은 158만원이었다.

단, 설비 설치 시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가 아닌 업체

와 계약한 경우 국비,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광수/기자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순창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순창군이 설랜드를 기반으로 한 관계인구, 교류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순창 워케이션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말한다.

군은 지난해와 올해 전북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 지방소멸기금 12억원과 군 기금 8억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확보했다.

'치유와 웰니스 메카'로 알려진 순창 설랜드 내에 워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갈로 4동과 공유오피스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설랜드 워케이션 거점공간은 설랜드 주변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특색있는 공유오피스와 기업에서 팀 단위로 숙박할 수 있는 방갈로(66㎡, 복층형) 4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설랜드를 찾는 워케이션 이용자를 위해 설랜드만의 특색있는 힐링 요가·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과 후에는 순창읍에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음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순창읍에 있는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문화 관광체험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케이션 전문가를 초빙해 워케이션에 대한 트렌드 이해와 콘텐츠 구축을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명일 순창군수는 "설랜드 워케이

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동농 교류(1사1촌) 차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단체를 우선 유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워케이션을 통해 순창에 체류하면서 지역에 소비로 이어져 관계인구, 교류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식/기자

남원시 전 공무원 시민 생명지킴이로 앞장서



남원시는 남원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을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시행률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리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교육대상을 재난업무담당자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했다.

교육내용은 △응급활동 원칙 및 요령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사용법 △응급구조 시 안전수칙 신고요령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작동 체험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전문지정기관을 통해 실시된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내 남원시청 공무원 1,4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위급 상황에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심정지 사고에 대비해 '내가 배운다면 누구든 살릴 수 있다'는 마음자세로 전 직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 왕인 '황용주' 씨 선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교육, 문화, 체육발전 공로 인정



영암군은 지난 6일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왕인'으로 영암읍 출신 황용주(73세)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왕인으로 선정된 황용주 씨는 투철한 교육철학과 사명감으로 영암 여자중·고등학교장을 역임하는 등 34년 간의 교직생활 동안 녹조근정 훈장, 사학육성공로장, 문교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특히 1975년부터 2010년까지 교직 생활의 전부를 영암여자중·고등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영암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황 씨의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은 재직기간에만 그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이어져 영암지역거점고등학교 육성추진협의회 위원장(재)영암군민장학회 이사, 전남도교협(재) 감사 등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과 후진양성을 위해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이룩했다.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황용주 선생이 교육자로서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꾸준히 영암의 교육, 문화,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어진 인품으로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어 올해의 '왕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왕인으로 선정되면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 대표행사인 'K-레전드, 왕인의 귀환'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왕인박사의 위업을 선양하게 된다.

왕인문화축제가 시작된 이래 1999년 첫 '왕인'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2명의 '왕인'이 탄생했으며, 출신지별로는 영암 5명, 삼호 1명, 덕진 3명, 금정 1명, 신북 2명, 시종 1명, 군서 5명, 서호 1명, 학산 1명, 미암에서 2명이 배출됐다.

김성현/기자

전남도, 전국 최초 중소기업 수출직불금지원

월 100만원 한도 최고 500만원...730개 기업 혜택 예상

전라남도는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전남 중소기업이다. 2023년 1월부터 수출한 실적 2만 달러 당 월 100만 원 한도로 기업당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 수출액 1천만 달러 이하 전남 지역 중소기업 730여 곳이 수출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직불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국제협력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속되는 국제적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직불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올 겨울 2번째' 나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4억2000만원 추가 지원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100명 대상

전라남도 나주시가 늦겨울 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위한 난방비 4억2000만원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 1월에 이은 2차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생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만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2100명에게 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겨울철 한파 대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20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5억3900만원 규모 난방비를 발 빠르게 지원한 바 있다.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이번 달 16일까지 대상자 본인 및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1월에 이어 2차 난방비 지원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늦겨울 추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을 통해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광주광역시, 2023년 천만 관광도시로 순항 중

지난해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총 840만 명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잠정 집계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립5·18민주묘지 등 시 별도 관리지점의 방문객을 합산한 결과, 2022년 총관광객이 840만274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449만 9679명) 대비 86.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달은 10월로, '추석의 광주충장 월드컵스티벌'과 '버스터즈 월드컵 in 광주', '광주세계김치축제' 등 가을 축제 행사를 연계 홍보하고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 '시월광주'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립미술관은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이 열린 10~11월간 방문객이 4만7850명으로, 미술관 연간 방문객의 37.9%에 달했다. 전통문화관의 '무등울림축제', 김치타운의 '광주세계김치축제' 기간에도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다. 독창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축제와 행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간 관광객은 무등산국립공원이 209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177만명), 김대중컨벤션센터(89만명)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야영장 이용객 수로, 2022년 승촌야영장 2만4462명,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 5만2956명으로 두 곳 모두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이용객 수를 달성했다. 코로나19를 피해 야외 레저활동인 캠핑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야영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광주 관광소비(신용카드 소비액)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9400억원 규모였다. 업종별로는 문화서비스, 여행업, 관광유원시설의 소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2019년의 95.7% 수준까지 회복한 2022년 소비 추이는 침체됐던 지역 관광산업 경기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국내 관광

트렌드로 '일상의 매 순간이 여행의 순간이 될 수 있다'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에 발맞춰 엔데믹 시대를 위한 발빠른 준비에 나섰다.

먼저, 광주를 '축제의 도시'로 브랜딩한다. 2023년에는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충장축제&버스킹 월드컵, 광주세계김치축제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등 굵직한 축제와 행사들이 연중 개최된다. 주요 이벤트를 시기별로 그룹화해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하고, 관광객들이 축제 이외의 광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의 대표 국제행사인 광주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여행사 대상 비엔날레 방문 인센티브 제공, 연계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 운영, 관광객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스토리텔링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 광주 관광의 4대 축인 영산강, 양림동, 망월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이야기를 입혀 줄 새로운 관광 상품도 기획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향후 관광상품 런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위한 인플루언서 캠페인 운영 등에 활용한다.

김준영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올해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연이어 개최되는 기회의 시기"라며 "다양한 축제·행사와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광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멋 흥 콘텐츠를 개발해 올해를 천만 관광도시 광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해남군, 해남으로 '맛 여행' 제철진미 미식여행상품 출시

천혜의 자연이 품은 제철 진미를 활용한 미식 여행상품 4월부터 운영

오롯이 맛을 위한, 맛을 향해 해남 미식 여행을 떠나보자.

해남군은 해남 8미와 제철 음식을 활용한 미식 여행상품을 출시한다.

해남을 대표하는 맛, 해남 8미는 보리쌈밥, 떡갈비, 삼치회, 황칠오리백숙, 산채정식, 닭코스요리, 생고기, 한정식이다.

계절별로 즐기는 제철음식은 봄에는 쭈꾸미, 갑오징어, 보리송어가 곱히며 여름에는 병어회와 하모회, 장동어탕, 가을에는 전어회, 겨울에는 낙지탕탕이, 간재미회무침, 삼치회가 인기이다.

해남미식여행상품은 미식 체험 외에도 대흥사, 땅갈마루, 4est수목원, 명랑 해상케이블카 등 해남군 주요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해남 특산물도 구마를 활용한 고구마빵 만들기, 찾아가는 막걸리 주조장 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해남 미식여행 상품은 KTX를 연계

해 서울에서 해남으로 2시간(용산역-나주역 기준) 만에 이동한 뒤 나주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해남으로 이동하는 1박2일 관광상품으로 계절별 운영된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스와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포털에서 '해미여행사'를 검색하거나 해미여행사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해남시티투어버스 정기 운영 코스로도 편성해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풍성한 맛과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수요자 맞춤형 여행상품이 대두됨에 따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여행 상품을 기획했다"며 "계절별 각양각색의 해남의 맛을 먹어보고 느끼고 즐기는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완도군, 전지훈련 최적지 우뚝 '연인원 1만 2천 명'

온화한 기후, 확충된 체육시설, 음식·숙박업소 서비스 영향

전남 완도군이 온화한 기후와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축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5개 종목의 70개 팀, 총 941명이 완도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인원은 12,099명이다. 이는 군이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한 이후 가장 많은 연인원으로 기록되며 전남도 내에서도 상위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배드민턴 명문 팀인 삼성생명, 요넥스, 한림대와 태국 프로 산하 유스팀이 다녀가며 완도군이 동계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명성을 쌓는데 일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지훈련팀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완도군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온화한 날씨 등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청해진 스포츠센터 등 확충된 체육 시설과 음식, 숙박업소의 서비스, 수년간의 대외 홍보 등이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전지훈련팀 유치로 선수들이 완도에서 체류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10억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우리 완도가 전지훈련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지훈련팀 유치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영물/기자



예산군, 사과재배 100주년 맞아 '명품사과' 도약 원년 삼는다!

예산군이 사과 재배 100주년을 맞아 2023년을 명품사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예산사과는 1923년 고덕면 대천리에 일본인이 처음 사과원을 개원한 이래 맛과 명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군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 사과 주산지로 올라섰다.

이러한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 고령화 및 생산비 상승에 대비해 군은 과수분야에 △과수원용생력화기계지원(12억2000만원) △과수저장신선도유지지원(4억6000만원)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지원(4억2800만원) △과수명품화육성지원(6억2800만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2억4600만원) △기후변화대응대체작물육성(19억7600만원) 등 8개 사업에 51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군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과수영농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부터 정기 공급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군은 '후지' 품종의 일변도에서 벗어난 사과 신품종 도입 및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노후 과

수원을 밀식 과원 등 미래형 과원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21년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편성해 예산농금농협(조합장 권오영)과 함께 미국 신품종(레이브) 보급기관과 독점 공급 계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국립종자원 품종보호출원 및 예산농금농협에서 모수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도입할 예정인 신품종 '레이브'는 극조생종으로 반사फल을 깔기 등 착색작업이 필요치 않아 일손이 적게 들며, 같은 시기 출하 품종인 아오리보다 맛과 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미국산 사과 신품종 '레이브' 도입으로 조생종(레이브)-중생종(엔비)-만생종(후지)로 이어지는 차별화된 생산판매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2023년 예산 사과 재배 100주년을 기념해 '예산사과 100년사 홍보지원사업(총사업비 7000만원)'을 예산농금농협을 통해 추진하며, 오는 6월까지 예산사과 100주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찬방향 설정과 자료수집, 사진촬영 등을 진행해 오는 10월 기념도서를



편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산사과의 역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타 산지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 사과 재배 100년을 맞아 올해를 국내 최고 명품 사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역의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고품질 과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준비 본격화...프로그램 구체화 돌입

천안시는 오는 8월 11일~15일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세부 프로그램 구체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에 대한 목표와 성과, 목적, 추진현황, 주요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시는 독립기념관을 기반으로 K-컬처 도시브랜드를 선점하고, 향후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올해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의 역사와 미래 가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2025년까지 3년 동안 지역 박람회를 개최한 후 최종적으로 2026년 세계 박람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크게 독립기념관 입구의 웰컴존, 거례의집 앞마당의 K-컬처 무대행사, 독립기념관 전역의 K-컬처 전시·체험 행사 등으로 나뉜다.

입구 웰컴존에는 K-컬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배치할 계획이며, 국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스트리트 댄서들의 공연을 개최해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참여형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대 행사는 1일차 개막 공식행사 및 축하공연, 2일차 한복패션쇼와 OST콘서트, 3일차 K-POP커버댄스경연대회 결선, 4일차 K-POP 슈퍼콘서트, 5일차 8.15경축식과 더불어 K-컬처박람회 폐막 행사가 이뤄진다.

핵심 콘텐츠로는 거례의탑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600여대의 ICT 드론을 활용한 불꽃 판타지쇼, 세계 독립 문화 전시, K-POP 슈퍼 콘서트,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공연의 경우에는 관람객의 선호 반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출연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는 한류의 역사를 시대별로 볼 수 있는 K-컬처 전시관을 운영해 독립정신부터 현재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문화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우리 민족의 화합과 단결의 정신을 엿볼



수 있도록 기획할 전망이다. 또한, 전 세계의 독립 국가 74개국과 함께 독립국가 국민들의 힘과 그들이 만들어 낸 세계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독립문화 전시관을 구축할 예정으로, 현재 대사관 및 문화원과 소통해 참여국을 모집하고 있다.

주무대인 거례의집과 별도로 독립기념관 내 서곡 캠프장에서는 천안 K-프린지 페스타를 열어 그동안 비주류로 불려왔던 인디 아티스트들이나 지역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객들이 캠핑을 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박람회로 꾸밀 계획이다.

시는 이번엔 마련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별 무대구성, 공간배치, 시스템설치, 시간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3~4월 운영대행사 선정 후 2023 천안 K-컬처박람회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체화를 월별계획에 맞춰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앞으로 실행계획에 맞춰 프로그램 시·공간별 구성 및 교통안전 대책 등을 빈틈없이 마련해 완성도 있는 2023 천안 K-컬처박람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박람회 성공개최로 천안시를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기반 K-컬처 신거점 도시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지역발전 위한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강릉시, 상반기 4,682억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강릉시는 높은 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 대상액 8,392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682억 원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55.8%로 설정하여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부문은 1분기 중 1,249억 원을 집행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극대화한다.

또한, 상반기 확장적 재정집행을 위해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계약 관련 심사 기간 단축,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집행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사업의 집행 상황 및 장애 요인 등을 중점 관리한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底下高)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에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의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교육경비 예산 조정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아산시의회 의장단 면담 통해 이해와 협조 요청

박경귀 아산시장은 6일 시장실에서 아산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예산 조정과 관련해 시 의회에서도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뇌의 시간을 거쳐 어렵게 내린 결단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김희영 아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의장단 면담에서 "국가에서도 80조가 넘는 재원이 자동 적립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세수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실정에서 교육재정이 지방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산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교육비는 국비로 투입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아산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검토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번 지방정부 회의에서 지사님도 공감했고, 14개 도내 시장·군수들도 동의했다"며 "김지철 교육감이 주도한 교



▲박경귀 아산시장은 6일 시장실에서 아산시의회 의장단과 면담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예산 조정과 관련해 시 의회에서도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뇌의 시간을 거쳐 어렵게 내린 결단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재천명했다.

육정책에 관해 시 차원에서 면밀하게 규명하겠다. 시민들에게 결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할 것이다. 성과평가도 할 것이며, 교육청과 논의해 교육재정을 바로 잡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역할을 재정의

하겠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아산시 학생 수에 비례하는 적정금액의 예산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연구운용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시민 전체를 위해서 시 의회에서 함께 감내할 것을 제안했다.

김원호/기자

동해시, 내년도 국·도비 확보 팔 걷었다

국비사업 소관부서 실명제 및 책임제 운영

동해시가 주요 현안사업 및 대규모 SOC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팔을 걷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부서별 국·도비 사업 발굴에 이어 2회에 걸쳐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특강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또, 5~10개 대규모 중점 국비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논거 마련 등 도와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국·도비 확보사업 사전설명과 각종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특히, 시는 무릉별유천지 1단계 선도시업에 이은 2단계 재정투입사업의 위대도면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효율적 국비확보를 위해 최근 김규하 부시장을 특별팀장으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으로 구성된 무릉별유천지 국·도비 확보 특별팀을 구성했다.

지난 2일 제1차 실무회의를 갖고 무릉별유천지 2단계 재정사업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협업을 위한 용역컨텐츠 제공과 향후 국비 예산 순기별 대응전략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함께, 목호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대시설 일괄 국책사업 반영 논리와 상하수도·교량 등 SOC시설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역점(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신규사업 34건, 계속사업 10건 등 총 44건 3,970

억 여원(국비 1,478억 여원)의 국·도비 사업을 발굴 했으며,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고보조(공모)사업 목록을 부서에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앙부처 세부사업을 소관부서와 매칭(1:1 또는 1:多)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실질적 공모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명제도 추진하고 있다.

김규현 시장은 "동해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역점 및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는 관심과 의지의 크기에 따라 결실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행복 동해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 화천군 지역경제 지탱

화천군의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달 7일부터 2023 시즌오픈 전국 파크골프대회 예선전을 시작해 오는 7~8일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결선대회를 진행한다.

화천산천어축제가 지핀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파크골프가 이어받는 모양새다. 4월이면, 제65회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이 북한강 일대에서 치러져 약 1,000여명의 선수단이 화천을 찾게 된다.

한국 여자축구의 메이저 대회인 2023 행복교육도시 화천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도 4월 화천읍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치러진다.

5월에는 국내 최대 동호인 자전거 대회 중 하나인 2023 화천 DMZ 델리가 약 74km에 이르는 DMZ 코스에서 펼쳐진다.

매년 5,000여 명이 출전하는 이 대회는 신청을 위한 '접수령'을 넘기조차 만만치 않은 국내 최고의 인기대회로 손꼽힌다.

국내 유일의 부부 파크골프 대회인 2023 전국 부부파크골프대회 역시 5



월 화천에서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6월에는 제22회 화천 파로호배 전국카누대회가 북한강에서 열리며, 본격적인 여름시즌인 8~9월에는 제13회 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풋살대회, 화천산천어배 전국오픈 배드민턴 대회, 제17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가 연이어 화천에서 개최된다.

9~10월에는 화천평화배 전국메스닉스 페스티벌,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과 참가인원을 자랑하는 2023 화천 산천어 전국파크골프 페스티벌,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11월에는 화천토마토배 전국풋살대회, 2023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진행된다.

2023년 대미를 장식하는 스포츠 이벤트는 11월 개최될 국내 파크골프 동호인 최강자를 가리는 2023 전국 파크골프 왕중왕전이 맡는다.

화천군은 대회 개최 뿐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는 전지 훈련단 유치에도 적극 나서 지역경제 기여도를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북한강 주변을 비롯해 화천지역 곳곳에 최신식 스포츠 기반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스포츠 대회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부산시, 명지국제신도시에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 건립 첫단추

명지국제신도시, 첨단산업·교육·문화 외 서비스산업까지 완비



서부산의 중심, 명지국제신도시에 백화점을 포함한 대규모 쇼핑단지가 들어선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월, 명지국제신도시 내 백화점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 건립과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의 명칭은 '명지지구 복합5용지 개발사업'으로 약10만㎡의 부지에, 판매시설(백화점)·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구성된 지하 6층~지상40층, 연면적 1,171,502㎡ 규모의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백화점이 들어설 명지국제신도시는 지난 1월, 1조 7천억 원 규모의 신성장, 첨단산업을 위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단지 건립까지 확정되어, 겹경사를 맞게 됐다.

명지국제신도시가 위치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동남권에서는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자동차·해양·소부장 산업체 1,893개와 5만6천명의 숙련기술자가 집결된 곳이자, 2030년 준공예정인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최고수준의 항만인 부산·진해 신항을 품고 있어, 산업성장과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로서는 이제롭게, 자연친화적 친수공간과 대규모 녹지공원, 영국과 미국의 명문사학 설립, 국회도서관과 현대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인프라, 대학병원 및 대형 호텔 설립이 조성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정주여건까지 갖추고 있다.

이번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 유입은 명지국제신도시를 포함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제조업 중심지에 더해 서비스 및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명지국제신도시와 붙어있는 에코델타시티의 H사 프리미엄 아울렛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이 지역 관련산업의 성장과 그로 인한 고용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및 건설업체에서도,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과 유통업체 입점이라는 큰 호재를 만나, 최근 빙하기에 머물러 있던 부동산 및 건설경기에 봄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또한 명지국제신도시가 이번 호재에 힘입어 서부산권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청장은 "3조원이 넘는 문화복합시설 프로젝트 사업과 1조 7천억원 규모의 명지 1·2지구 업무시설사업을 합쳐 총 5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연내 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명지국제신도시는 우수기업 집적과 최적의 정주여건을 완비한 첨단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서부산 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달서구, 식품제조·가공업소 지원 사업 추진

대구 달서구는 이달 20일까지 식품제조업소의 브랜드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 '지역우수식품 명품브랜드 발굴 육성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 고급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해 '지역우수식품 명품브랜드 발굴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포장디자인 및 패키지 개선 등의 '제품 고급화', 온라인 마케팅 기획 및 라이브커머스 운영 지원 등의 '홍보 마케팅' 분야이다. 지원 내용은 제품 고급화 분야는 2개업소, 업소당 7백만원정도이며, 홍보 마케팅 분야는 2개업소, 업소당 5백만원정도를 지원한다.

김동현/기자



경남도, 조선소 RG 발급 등 현안문제 신속해결 위해 나서!

RG발급 문제 기업 여신한도와 직결...정부 대책 실질적 지원 못 받아

경남도는 최근 조선업이 제도약을 하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들이 일감이 있어도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재부와 금융위를 차례대로 방문해, RG발급 한도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조선소의 피해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보증으로, 기업은 공신력 있는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성사할 수 없다.

RG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 재무상태, 성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법정관리를 거치거나, 재무상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 조선사에는 RG발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RG적기발급 지원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도내 중소기업의 경우, 시중은행의 기업 여신심사 단계에서부터 막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15일 조선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RG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주 호황기를 맞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며, 정부의 실효

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 선가인상에 따른 RG발급 한도 재조정(2배 한도 확대) ▲ 제작금융 지원확대(인도비용의 50% 수준) ▲ 선박 인도소요기간(2~3년)에 따른 환차손 예방대책 마련(선물한 한도 확대 등) ▲ 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재무·신용상태 등 중

합→프로젝트 위주) 등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달 16일, 국회 정부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21일에는 수출입은행을 찾아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7일에는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직접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를 찾아 관계부처(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3자간 신속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28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만나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3월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지역은행권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도내 조선소의 RG발급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작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선소 RG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선소 외국인력 확대(20%→30%), 외국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장재현/기자

'실리콘밸리 유망 벤처기업 엘비스와 손잡다'

대구시-엘비스-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엘비스 대구지사 설립 및 과제기획을 통한 디지털 브레인 산업 공동 육성

대구시는 지난 3월 6일(월), 산격청사에서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엘비스(LVIS) 이진형 대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DIP) 김유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브레인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엘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디지털 기반 뇌 질환 진단 및 치료 기업으로,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포드대 신경과학 및 생명공학 종신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대표가 2013년 창업했다.

다수의 뇌 관련 국제 특허, 의료 데이터,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 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NeuroMatch)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초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2023에서의 첫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ABB(AI, Big Data, Blockchain) 기반의 디지털 브레인 산업 기반 구축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DIP에서는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디지털 장비 활용 및 과제기획을 지원하고, 엘비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과제기획 및 대구지사 설립, 대구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기로 했다. 참고로 엘비스의 대구지사는 3월 중으로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약식 이후 이진형 대표는 한국뇌연구원에서 '실리콘밸리 뇌 산업 생태계 동향 및 뇌산업 스타트업 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뇌산업 관련 연구자 및 기업인들과 포럼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종화 경제부시장은 "CES

2023에서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번 디지털 브레인 산업 육성 협약이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태백시, 농어업인수당 오는 6일부터 신청 접수

이상호 태백시장, 발빠른 행보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이상호 태백시장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발빠른 행보로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4억 2천9백만 원을 투입해, 관내 농어업인 613여 명을 대상으로 연 70만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년이상 계속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어업인이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

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내달 28일까지이며, 농어업인의 편의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접수기간(3.13.(월)~3.17.(금))을 운영할 예정이며 동별 해당 일자 확인 후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검토와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태백시 탄탄페이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영양군, 2023년 6대역점 사업은 이렇게 추진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3년을 역대 최고로 알차고 살기좋은 변화된 영양군 건설을 위해 힘차게 뛰고 있어 이에 본지 취재진은 영양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2023년 6대 역점 사업'을 집중 취재했다

◆공공기관유지분야는 교정시설, 공군관사, 영양 국유림관리소(분소), 영양자작나무숲체원 유치사업 추진이다.

▲영양군 교정시설 유치는 지역 소멸위기 극복 위한 적극적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청기면 상청리에 국비 900억원을 투입,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2021년 3월, 교정본부 방문, 교정시설 공문 발송, 공공기관 유치 입지검토 용역 착수, 교정시설 조성 건의 회신, 입지검토조사 용역 완료, 지난해는 교정본부 방문, 설문조사, 추진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개최 등 일부 국지적 반발로 사업 지연없도록 「영양자작나무동분부(가칭)」등 갈등관리 기구 운영, 부지보상, 인·허가, 민원해소, 정착지원 등 체계적인추진 전담 공무원 TF를 구성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추진 한다.

▲공군관사 유치는 자연과 인문환경이 조화로운 쾌적한 관사 정주여건과 인구증대를 위한 지역 상생모델 구축, 공군부대 장비 거주지 해소와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장과 주거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지역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공간 마련으로 60여명 이상의 단기 인구증가로 타 기관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영양읍내에 88억원에 35세대 관사(4층)를 건립한다. 지난해8월, 공군부대 방

문, 부대장과 군수 면담, 국방부 방문해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을 확보, 軍-郡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새로운 상생 모델 구현과 지역사회와 교류로 軍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 국유림관리소(분소)유치는 郡산림의 56%인 국유림의 금강송/자작 나무 숲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형 산불 초기 대응과 고령화에 따른 전문 인력의 대치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해부터 2026년 까지 5년간 영양읍(서부or동부리), 수비면(신원리or죽파리) 중 한 곳에 영양국유림 관리소 (분소)개소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명운동, 「남부지방산림청 국·공·사유림 통합 영양군 산림계획」에 영양국유림관리소(분소) 개소 필요성 반영, 올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산림청 및 관련 기관협의로 지속 추진 한다.

▲국립 영양자작나무 숲체원 유치는 자작나무 자원을 활용, 지역활성화와관광 종사자 유입으로 인구 증가 도모를 위해 영양군 국유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가 절실한데다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산림복지수요에 대응, 올바른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 확충 필요로 추진됐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영양 죽파리 일원에 국비 300억원을 투입, 산림기후변화체험장, 교육컨벤션장, 친림견습박사실, 산림생태교육장 등을 건립한다. 지난해 국가투자예산 요청, 영양 자작나무 숲체원 연구용역, 올 12월 확정, 2027년 10월 숲체원을 운영할 계획이나 유사시설이 있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사업추진 건의가 요망되는 사업이다.



◆관광분야는 영양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사업, 칠성 별천지 캠핑장 조성사업,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사업, 장구메기습지(포산)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이야기가 있는 선바위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다.

▲영양자작나무숲 힐링허브 조성은 국유림을 활용, 우수 생태관광 산림관광자원화로 관광수요를 창출, 국유

림 생태자원으로 지역 특화자원 활용한 관광거점 형성과 지역 명품 관광지로 조성, 지역민 소득향상을 위해

2020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확충, 인허가, 착공,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수비면 죽파리 일원에 사업비 45억4천6백만원으로 자작나무힐링센터, 자작나무숲 체험원, 주차장/전기차 운영 등 주민역량을 강화한다.

▲칠성 별천지 캠핑장조성은 일월면 칠성리 폐도 주변에 야영장을 조성, 캠핑족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4~2026까지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오토캠핑, 글램핑, 카라반 등 캠핑시설과 안내동, 중앙광장, 주차장, 샤워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지역 관광자와 연계한 캠핑장 조성,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캠핑장조성 타당성 용역, 토지, 지장물 보상/도비 신청, 용역 시행, 2024년 9월 착공, 2025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장구메기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건의, 장구메기 습지, 천주교성지, 삼의계곡 등의 생태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군은 2021년 10월부터 관심습지 정밀조사 기초자료 제출, 郡·중복원센터·습지센터 공동 장구메기 습지 정밀조사로 올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복원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2024년 포산리 관광지/마을을 관광 사업과 연계 생태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환경친화적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은 영양군 탐방자원에 대한 수용력과 탐방자원간 연계 강화, 체류형 생태관광 유도로 자립형 생태관광 기반 구축, 자연자원의 현명하 이용/지역소득 증가를 위한 환경친화적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2024년까지 영양군 수비면 일원에 사업비 120억원(국비50억확보)으로 숙박·교육 등 별빛센터, 생태탐방 청정힐링촌 설립해 환경친화적 소규모숙박시설 체류형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지난 2021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 국비 건의 요청, 지난해 6~8월까지 사업대상지 타당성조사, 2023년 8월까지 용도지구 변경 등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후 올 9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한다.

▲장구메기습지(포산)습지 보호구역 지정은 생물을 보전·복원, 향후 천주교성지, 삼의계곡, 낙동정맥/신돌석장군 부인묘 등과 연계 생태관광자원화를추진, 관광객 증가/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영양군 석보면 일원에 1억 원으로

◆농업은 업체류 특구 지정/전문단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 정주형 작은농원사업이다.

▲업체류 특구 지정/전문단지 조성은 업체류 생산기반 구축, 생산유통현대화로 경쟁력 확보와 지역자원과 연계 브랜드 가치 제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업체류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郡일원에 사업비 70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양군 업체류 특구 지정 용역, 올 12월까지 실시용역, 내년 1월 12월, 특구 신청/기반시설 부지매입,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 선별장/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은 노동집약적 작물 재배로 농번기 일손 부족, 고령화-인구감소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번기 2~3회(400명) MOU체결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국내체류외국



▲국도31호선(현리지구)선형개량사업은 국도31호선 영양읍 감천리~현리 구간, 좁은 회전 반경, 낙석 등 위험구간을 개량, 지역 교통환경 개선으로 차량 안전 확보, 도로 이용 주민 편의 교통 환경 제고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26~2030년까지 영양읍 감천리~영양읍 현리 일원에 사업비 190억원으로 총1.574km(2차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타당성 용역, 사업건의, 올 7월 제6차 국도국지도종합계획 사업 건의, 내년 1월 제6차 국도국지도종합계획에 포함 예정이며, 2026년 7월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마령~산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입암 산해리 국도2호선 동산정역의 종단경사와 안동 마령리 국도16호선 연결구간의 도로선형 불량과 겨울철 빙판길과 예방을 위한 불량 선형구간 개량,소행하는 차량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입암면 산해리~임동면 마령리 일원

◆복지분야는 50세 이상 군민건강검진비 지원, 청년부부만들기 지원사업 실시,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수중재활센터 건립, 영양군립 공원묘원 조성사업이다.

▲50세이상 군민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질병 조기발견/의료비 경감으로 군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24억원으로 50세이상 주민 1만명 대상, 당해 대상자에게 추가 검진비 2년 1회당 30만원을 지원 한다. 지난해 11월 대상자 명단 확보, 12월 조례 제정/건강검진비 지원계획/홍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부부만들기 지원사업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 진입의 절박한 입장에서 저출산·고령화/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 방지 대책을 위해 관내 청년들 대상, 결혼장려 지원정책을 시행, 저출산 극복과 지역인구감소에 대응기 위해 올 1월부터 만4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대상(연50쌍), 결혼장려금 5백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부터 군 인구증가정책지원 조례 일부개정, 청년부부만들기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올 1월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인 등, 사업비 2억4천8백만원을 투입, 자매결연 도시 베트남 화방군과 MOU체결로 안정적 계절근로자사업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 농번기 인력 확보를 위한 도입경로 다변화를 추진 한다.

▲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은 인력부족 해결, 인건비 상승억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 근로자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22년 2월~내년 12월까지 영양군 입암면 일원에 사업비 50억원(공모사업 선정 국비 12억, 경북도비 4억8천만원)으로 지난해부터 설계제안, 설계 용역, 올 7월 착공, 내년 7월에 준공된다.

◆도로분야는 사들팔달 교통인프라를 위해 군민중심 교통체계 구축으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6개 지구 545억,내외부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환경의 획기적 변화에 2,488억원을 포함 3,033억원을 확보했다. 즉, 영양읍 관문도로 4차선도로개설, 국도31호선(현리지구)선형개량, 마령~산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다.

▲영양읍 관문도로 4차선 도로개설은 영양읍을 통과하는 지방도 918호선의 좁고 불량한 선형 개량과 차량 안전, 주민 편의 교통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영양읍 현리~영양읍 서부리 일원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 총965m에 4차선(폭18.5m)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실시설계 착수, 10월 주민 설명회, 올 1월 실시설계 준공 및 편입 부지 보상 시행, 2024년 1월 착수,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한다.



에 사업비 370억원(영양111억)을 투입, 총3.0km 구간에 2차선도로를 개설(구 구간 1.0km, 3개 선형개량, 터널), 지난해 7월부터 설계/행정절차, 주민설명회, 영양군·안동시 협약, 올 7월 설계완료/편입부지 보상,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고령층의 대상포진 발생 시 후유증 예방/고가 접종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료예방접종으로 군민건강 향상을 위해 올 1월부터 계속, 6억1천만원을 투입, 올해 70세 이상 4,692명, 2024년 65세이상, 2025년부터 65세 도래자/미접종자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위탁의료기관 협의, 12월 조례 제정/공보-홍보, 올 1월부터 70세 이상 접종 하고 있다.



▲영양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인구 유입모델 도입 필요성과 은퇴자 중심 귀촌 수요 증가에 따른 정착지원시설로 스마트팜을 활용한 임대형 작은농원으로 정주인구 유입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해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청기면 일원에 사업비 72억원으로 주거시설, 농업시설,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반영, 용역, 올 7월 착공, 11월 완료, 1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은퇴자 중심 귀촌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스마트팜 영농기술로 안정적 귀촌·귀농 정착이 기대된다.



▲수중재활센터 건립은 노인인구 증가와 병행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 발생비율도 매년 증가,노인성질환 근·골격계환자를 위한 재활전문치료시설 부재로 수중재활센터 건립을 통한 전문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일상회복/자립 능력을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군보건소 부지내 지상3층(694㎡)을 사업비 46억5천만원으로 재활치료, 전문재활 장비확보등 수중재활센터를 구축해 올 1월 용역, 7월 착공 및 세부 계획수립, 조례 개정, 2024년 사업이 추진된다.

▲영양군립 공원묘원 조성사업은 현대식 장사시설 부재로 불편과 무분별한 묘지 조성/자연/경관 훼손 방지와 초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가족구조 변화를 반영한 장사정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영양읍 동부리 일원에 사업비 239억4천만원을 투

입, 10만㎡면적에 봉안당 1만기, 봉안묘 2만기를 설치한다. 이 시설 조성 과 진입로 확장,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 올 1월부터 용역 완료, 조례 제정, 2025년까지 인허가/설계, 2026년~2028년 장사시설 착공/준공 한다.



◆정주여건 개선분야는 먼단위 LPG 가스배관망, '23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바대들 주거단지 조성, 영양동부리 농촌공간감별, 영양읍 시장통로 도로 확포장 추진사업 이다.

▲먼단위 LPG 가스배관망 구축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과 취약층의 연료사용 개선과 LPG유통구조 단순화로 농어촌 주민 연료비 부담완화, LPG소형저장탱크/배관망 설치로 노후가스시설 개선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 복지향상/편의성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28억원으로 수비면 말리1.2리의 277세

대에 LPG배관망/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12월말 국·도비 예산편성, 2024년 3월부터 업무협약, 마을설명회, 사업구역 확정/실시설계, 착공, 12월에 준공한다.

▲'23년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은 LPG가스배관망 구축사업과 같이 추진, 올해말까지 사업비 8억1천2백만원 을 투입, 입암면 신사2리 62세대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보일러 교체를 추진한다. 올2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업무협약, 마을설명회/사업세대 접수, 사업구역 확정/설계, 착공해 12월 준공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간 에너지 비용 불균형을 해결, 주민 에너지 복지과 공공시설 연료비·전기료 절감, 재정 부담 경감으로 대규모 에너지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일분산형 에너지공급체계/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축한다.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40억원으로 주택/공공·상업시설 대상으로 태양광(3kw), 태양열(6㎡), 지열(17.5kw)설치를 지원해, 올 2월~3월부터 컨소시엄 공모, 사업설명회, 신청·접수, 공모사업서 제출, 공모선정, 내년 1월 협약, 2~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적한 주거환경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영양읍 동부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 도로개설 길이 4.0km, 폭 8~15와 기타 상수도, 녹지공간 등을 확충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 올해 3월부터 지구단위 계획 변경/인허가, 6월 기반시설 설계/편입용지 감정평가와 용지를 확보, 12월 사업이 완료 된다.

▲영양군 동부리 농촌공간정비사업은농촌공간 재생에 도모 농촌공간계획 기반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 정비와 공간 활용, 생활SOC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영양읍 동부리 일원에 181억원으로 유해시설 정비, 농촌공간 조성을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공모사업 선정, 올1월 수립, 내년 이후 보상 사업을 시행한다.

이처럼, 영양군의 '6대 역점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 영양군민들의 적극 협조와 동참이 중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6대 역점사업이 발목을 잡히게 된다면, 영양군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기에 군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추진하는 6대역점사업에 힘을 모아 주는 군민의식은 매우 소중한 잣대가 될것인 바, 이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 보다 업그레이드 된 영양군이 건설돼 지길 기원 드립니다.

경북도, '2023년 내수면 수산물 시제품 개발' 추진

내수면 가공식품(HMR, 간편식 등) 및 생태계 교란 어종(베스 등) 상품개발

경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올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한동해산업연구원과 함께 HMR, 밀키트 등 가정 간편식 시제품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가정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며 소비 패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내수면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물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 △내수면 어종의 고부가가치 소재 발굴을 위한 기능성 분석 △유해외래어종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한 시장조사와 개발식품 기술이전 등으로 내수면 수산업을 활력 불어넣고자 한다.

경북도 내수면 어업 연간생산량은 2010년 1460톤, 2015년 2156톤, 2020년 1261톤으로 연간 1000톤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회·매운탕·찜 등 단편화된 소비품목과 중장년에 한정된 소비계

층 등 한계로 인해 내수면 수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다양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는 내수면 수산물 시제품 개발에 적극 지원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6종의 수산물가공식품을 개발했으며, 개발된 일부 품목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문성준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장은 "가정간편식 등 소비패턴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수산물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북 내수면 수산물 가공식품개발과 브랜드화 등 내수면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산물 이동 적발 시 엄중처벌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박상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 특별단속 기간은 3월 9일부터 22일까지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찢질방 등 17,165개소이다. 단속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 확산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별칙규정에 따르면 빨간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하는 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상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서울시,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대학생 응원단 4기 모집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알리는 대학생 응원단... 3월 6일~3월 17일 모집

서울시가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홍보하는 시민제안 대학생 응원단 4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총 12팀을 선발한다.

'20년 6월 첫 활동을 시작한 시민제안 대학생 응원단은 시민제안과 공론장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관계망(SNS)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민제안 대학생 응원단으로 선발되면, '상상대로 서울'에 올라온 시민제안부터 '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공론장까지 '상상대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주요 소식을 사회관계망(SNS)으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생의 감성으로 제작된 참신한 콘텐츠와 홍보 아이디어 등은 시민제안 플랫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제안 대학생 응원단은 개인 사회관계망 활용에 친숙한 전국 대학재(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팀(4명 이하)을 구성하거나 1인 개인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일 현재 전국 대학 재(휴)학 상태이어야 하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1개 이상 사회관계망(SNS) 계정(비상업적 이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외활동 경력(응원단, 홍보단, 기자단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상상대로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및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론장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관계망(SNS)에 올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한다.

시민제안 대학생 응원단으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지원과 위촉장 및 활동인증서 수여, 우수 활동팀은 서울시장표창 후보자로 추천된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대학생 응원단의 열정있는 사회관계망(SNS) 활동으로 '상상대로 서울'이 더욱더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아이디어 홍보에 관심 있는 대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응원단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 또는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광수기자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기부금액: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기부자

고향사랑기부금
(연500만원 한도)

영양군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액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증진**

문의: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ilovegyoang.go.kr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1인당 200만 원 지급

오는 17일까지 신청, 정주인구 증대와 관내 학부모 교육비 부담 덜어

순창군이 2023년도 대학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순창군 출연기관인 순창군육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가 올해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 관내에 대학이 없어 서울, 수도권 및 광주, 전주 등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함에 따른 신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에서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올해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등 교육비에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다"며 "군에서는 올해에도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학 신입생들에게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

항은 (재)순창군육천장학회 및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육천장학회(650-

1242), 순창군청 행정과(650-1238)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식기자lis@hanmail.net

2023년 대학 합격 축하합니다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 지원

순창군에서 2023년 대학 합격을 축하하며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원을 드립니다.

- 신청기간 (1차 신청) 3. 2. - 3. 17. / (2차 신청) 3. 20. - 4. 14.
- 신청장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신청기준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중 -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에 진학한자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당시 본인1년 이상 순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불가
- 지원금액 학생 1명당 200만원(총 1회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 및 육천장학회(http://www.ocjh.kr/) 홈페이지 참고

문의: (재)순창군 육천장학회 (650-1242) / 순창군청 행정과 (650-1238, 1213)